

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회보 2013년 봄호 제130호



이화동창

2013년 봄 제130호



- | | | |
|----|---------------|--|
| 02 | • 봄의 시 | 새 김현숙 |
| 03 | • 총동창회장 취임사 | 다시 은혜와 수련의 시간 가지게되어 감사 조종남 |
| 04 | • 정기총회 |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개최 |
| 08 | • 신입동창답사 |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나 |
| 09 | • 총동창회 사업계획 | |
| 10 | • 총동창회장 인터뷰 | 알차고 즐겁고 진취적인 총동창회되도록 |
| 12 | • 기획시리즈 | 노교수와 두려운 제자들 의과대학 |
| 16 | • 기획시리즈 | 김해연 교수가 추천하는 2013 이화 유망작가 김현주 |
| 18 | • 기획시리즈 | 김선주가 만난 이화 예술인–성악가 박성희 |
| 22 | • 자랑스러운 이화동창 | 국제방송의 전성기 열어가는 딸셋의 어머니 손지애 |
| 24 | • 축하합니다 | 차귀숙 신선희 정재용 이혜숙 이정혜 안정숙 김영미 박은주
최경실 이숙진 |
| 26 | • 이화 사위석 |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이화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다 이범석 |
| 28 | • 그때 그시절 그교정 | 96세의 나이에 더욱 그리운 모교, 이화학당 정준희 |
| 32 | • 양케이트 | 총동창회 사랑과 발전을 위한 한마디 이남숙 양수화 문정숙 |
| 35 | • 화제의 이화인 | 78세에 이룬 소망, 학사모 쓴 고복희 동창 유정희 |
| 36 |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성도 한 명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45명 서은주 |
| 38 | • 이화문인 산문 릴레이 | 연암의 실루엣 1 조한숙 |
| 40 | • 총동창회 소식 | |
| 45 | • 대학소식 | |
| 47 | • 과·학부 소식 | |
| 50 | • 국내·해외지회 소식 | |
| 58 | • 모교 소식 | |
| 61 | • 동창 소식 | |
| 64 | • 동창이 펴낸 새책 | |
| 66 | • 신입동창명단 | |

편집위원

조종남(의학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효신(의학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은(영문79)

2013년 봄 제130호 비매품 | 발행 · 2013년 4월 10일 | 발행인 · 조종남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 · 3387

E-mail : ewhaalum@ewha.ac.kr

편집 · 도서출판 계간문예(02-3675-5633) | 디자인 · 박래후편집공방 www.raehoo.com 02-742-9991

인쇄 · 신아인쇄

©2013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새

김 현 숙
영문 69

어린 풀들 사이를 거닐다

나뭇가지에 푸른 생각을 걸어놓는다

물 위를 총총총 걸어다니는 친구도 있다

나무처럼 땅에 메이지 않고

돌멩이처럼 물에서 가라앉지도 않는다

말하고 싶을 때 노래한다

갖은 빛깔과 모양새로 덧칠하지 않으며

짧게 때로는 더 짧게

너무 배불리 먹지 않고

또 세상을 움켜쥐듯

눈 부릅뜨고 훑어보지도 않는다

이러니 세상이 의심없이

천지간을 다내어주나보다

신이 부를 때는

두려움 없이 하늘로 퉁겨오르지만

원하는 건 다만

마음의 길을 가는 것

몸에 짐을 쌓지 않는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때로는 더 가벼이 흘날리는 흘씨

다시 은혜와 수련의 시간 가지게 되어 감사

회장 조종남 | 의학 75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창 여러분!

이번 3월 총회에서 다시 총동창회장직의 소임을 맡은 조종남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 향기가 감도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동창 여러분들을 지면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총동창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게도 고문님들께서 적절한 충고와 방향을 늘 제시해주셨고 행사 때마다 각 대학, 과, 대학원 동창회장님, 모든 임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로 성황 속에 발전해나가는 동창회를 느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저는 동창회 회무를 보는 시간들이 은혜와 축복과 수련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행사 때마다 축하 글을 쓰고 인사말을 하기 위해 이화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창립자 스크랜튼 선교사님으로부터 김활란, 김옥길, 정의숙, 윤후정 선생님 등 수많은 선배님들의 정성 어린 땀과 기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정성스레 쌓은 텁에 돌 하나를 더 얹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3년 우리 이화는 20만 동창생이 함께 하는 이화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화네트워크의 일원으로 국내외 어느 곳에서나 여성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선후배님들을 동창으로 만나게 되고 필요시에 가르침을 받으며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도 김선옥 총장님을 중심으로 세계 속의 이화, 이화의 세계화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를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학원 졸업생을 정회원으로 한 울타리에 넣는 회칙 개정을 이번 총회에서 하였으며 진정한 이화네트워크의 소통에 더욱 활기를 더할 생각으로 정보통신부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총동창회의 정기적인 행사 이외에 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한 동창 여러분을 모시고 축하연을 열었고 제 1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동창의 날’을 맞아 해외에서 오신 동창들을 초청하여 ‘오찬회’를 가졌습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열린 밴쿠버에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2월에 부산지회 송년회에 참석하여 소중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던 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제 2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큰 바자회’도 가을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총동창회 회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20만 동창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동창회의 여러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화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환영회 개최

신임 총동창회장에 조종남(의학 75) 회장 연임
회원 회칙 등 개정 안건 통과

지난 3월 9일 오후 2시 총동창회는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환영회를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 삼성 교육문화회관 8층)에서 개최하였다. 모교 윤후정 명예총장, 김선옥 총장, 장명수 이사장 등과 총동창회 윤순희(교육 65), 김순영(약학 62) 고문 등 약 25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신임 회장 선임 및 임원 개선, 회원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신입동창환영회에서는 박관순(법학 72) 법대 동창회장의 환영사와 이미나(자연대학) 신입 동창의 답사가 있었으며 박성희(성악 01) 동창의 봄의 왈츠 등 멋진 축가로 3천 5백 여 명의 신입동창들을 환영하였다.

이어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조종남 총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사 때마다 축하 글을 작성하고 단상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이화의 역사를 꾸준히 연구하여 그 속에 숨어 있는 창립자 스크랜튼 선교사님으로부터 김활란, 김옥길, 윤후정 선생님 등 수없는 선배님들의 정성어린 땀과 기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회고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총동창회 회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준 여러 동창들께 진심을 담은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선배들이 아름답고 정성스레 쌓은 탑에 돌 하나를 더 얹는 느낌으로 16 대 임원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20만 동창들이 총동창회와 모교

의 및 신입동창환영회

9일(토) 오후 2시 ■ 곳 :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대회의실



를 좀 더 가깝게 느끼고 다가올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정보통신부
의 신설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참석 동창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축사를 한 장명수 이사장은 '20만 명에 이르는 훌륭한 동창들을 가진 총동창회
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좋은 학교라는 것은 동창들이 얼마나 모교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느냐에 따른 것' 이라면서 '동창들의 사랑과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이화
여대야말로 세계 최고의 대학이며 모교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부와 후원에 있다'
고 하여 참석 동창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주었다.

김효신(의학 84)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황영남(독문 75) 서기의 전 회
의록 낭독, 유희숙(법학 65) 감사의 2012년도 감사보고, 김영인(경영 91) 회계의 2012년
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승인과 201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승인 등이 참석 동창들의
큰 박수 속에 '가'로써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이 인준을 선포하였으며 회원 등에 관

련된 회칙 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칙 개정으로 대학원 졸업생들이 정회원으로, 이영희, ALPS, 평생교육원 등 이화 평생 교육을 이수한 졸업생이 특별회원이 되었으며 고문은 2회를 연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날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임원 개선으로 윤순희 임원개선 전형위원이 신임 회장으로 조종남 제 16대 회장의 연임을 발표하는 순간이었다.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행사를 성황리에 치르고 총동창회를 잘 이끌어온 조종남 회장의 업적을 치하하며 전형위원 만장일치로 신임 총동창회장으로 선임한다는 발표에 조종남 회장은 다시 2년간 총동창회장으로 봉사하게 된 것에 대해 참석 동창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였다.

이어서 모교 김선옥 총장이 세계로 벌어가는 이화의 새 프로젝트를 2013년 모교 소식으로 발표하여 참석 동창들에게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었으며 특히 앞으로 건축하게 될 기숙사 등 교내 신축 건물에 대한 소식에 참석 동창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총회는 교가 제창을 마지막으로 폐회하였고 참석 동창들은 총동창회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고 앞으로 열릴 많은 행사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유희숙 감사

박관순 법대 회장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2013년 졸업)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동창회 선배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의 표현을 올립니다. 그리고 신입 동창생들을 대표하여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 이화여대에 입학할 때에 기대 반과 걱정 반이었습니다. 새로운 대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화여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생긴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 지내면서, ‘이화여대’에 대해 생각했던 이미지가 모두 변하였습니다.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 간의 끈끈한 우정, 진심으로 선 후배가 서로 위하는 모습, 자립심과 책임감을 키워주는 학교, 모두 함께 봉사에 힘쓰는 풍토 등,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화여대’의 이미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아름답고 멋있는 캠퍼스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었고 이내 이곳에 속해있다는 소속감에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봄은 화려한 색감의 꽃들로 눈을 즐겁게 하였고, 여름은 푸르른 풀들로

음에 생기를 주었고, 가을은 은행나무의 노란빛과 단풍나무의 붉은 빛이 서로 어우러져 더욱 운치가 있어 감성의 풍요로움을 주었고, 겨울에의 하얀 눈이 덮인 설경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이화여대에 입학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저희가 졸업을 하고 신입 동창생이 되어 선배님들께 환영회를 받게 되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졸업을 통해 동기들과 아쉬운 이별이 있었지만, 동창회에 와서 또다시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설레는 만남이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화여대에 입학하여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얻었기에 이화여대에 대한 고마움도 크고,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는데, 이렇게 동창회를 통해 선배님들을 뵙고, 동기들을 볼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이렇게 든든한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고,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선배님들께 받은 응원 및 지원을 저희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저희 또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



2013년 총동창회 사업계획

도록 하겠습니다.

총동창회는 다음과 같이 2013년도 사업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창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정기총회 3월 9일(토)

신입 동창 환영회 및 장학금 수여 3월 9일(토)

과, 대학(원)동창회장 및 국내지회장 초청 간담회 4월 18일(목)

제2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5월 4일(토)

이화 창립 127주년 기념 감사찬양제 5월 21일(화)

동창의 날 행사 5월 31일(금)

졸업50주년(1963년 2월 졸업), 졸업30주년(1983년 졸업) 동창 재상봉 행사 및 합창제 등

해외지회 동창을 위한 간담회 6월 1일(토)

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 9월 11일(수)

후원이사 간담회 10월

문화특강(문화탐방) 10월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 10월 24일~27일, 미국 워싱턴 DC

제9회 '아름다운 이화인상' 시상 11월 25일

이화인의 밤 행사 11월 25일(월)

이화가족 성탄예배 12월 5일(목)

동창회보 130호~133호 발간 (3, 6, 9, 12월 말)

국내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 순방 (전반기, 후반기)

연회비 납부회원 배가운동 (연중)

후원이사증원 (연중)

모교발전기금 모금 (연중)

동창회 기금 마련 위한 소바자 (연중)

모교 지원사업 (연중)

무료 법률상담, 나눔가게 등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연중)

황화방 운영 (연중)

기타

알차고 즐겁고 진취적인 총동창회도록

2011년 제16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임되어 총동창회를 이끌어온 조종남 회장이 연임되어 앞으로 2년 동안 총동창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20만 동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들어본다.(편집자주)



다시 총동창회장에 선임되신 소감은?

2년 전 처음 총동창회장으로 선임되었을 때도 총동창회 일을 모든 일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곳곳에 있었겠지만 다시 신임을 받아 총동창회에 봉사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깨가 무겁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며 좀 더 알차고 즐겁고 진취적인 총동창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총동창회가 할 일과 계획은?

100년이 넘은 우리 총동창회가 지켜온 전통은 계

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마다 열렸던 연중 행사와 모교에서 하는 중요 행사에 참여하는 일은 더 열심히 더 활발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총동창회가 오늘의 발전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된 수많은 선배님들의 땀과 기도의 향기를 다시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동창의 날, 이화인의 밤 등 연례행사와 작년에 처음 개최한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총동창회 기금 모금 대バ자 등을 개최하려 하니 동창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부 신설 기념으로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화 사랑’이라는 주제로 글짓기 대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총동창회장으로 봉사하면서 힘든 일,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의사’ 일을 하면서도 그동안 틈틈이 YWCA 등에서 봉사도 하였고 사회적으로 단체장도 여러 번 했지만 총동창회는 임원을 거치지 않은 채 총동창회장에 선임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고문님들의 정성어린 충고와 임원들의 열성에 힘입어 좋아졌습니다. 그 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매번 행사가 끝날 때마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분에 넘치게 풍성한 잔치로 열매맺게 되어 대단히 기뻤습니다. 더욱이 행사가 끝난 후 편지나 전화로 좋은 평가를 전달해주는 동창들의 격려가 있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이화’ 총동창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7년간 이어온 ‘이화’의 설립 의지인 기독교 정신과 전통, 그리고 수많은 국내외 선교회와 선교동아리들, 또한 조용히 그늘에서 항상 ‘이화’를 위해 계속하는 기도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동창들의 다양하고 다재다능한 능력의 무한함을 느끼고 감탄합니다. 외부초청을 하지 않고도 우리 동창들의 재능만으로 모든 행사를 훌륭히 치를 수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큰 원동력은 선배들은 귀한 지혜를 후배에게 잘 전달하고 후배는 거기에 열정을 더하여 잘 보존하며 발전시키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동창회 역시 선배들의 그러한 노력이 이어져서 오늘의 총동창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127년 동안 배출되어 전 세계에 퍼져있는 동창들과 ‘이화 사위’들이 각자 속해있는 지역에서 ‘이화 정신’으로 봉사하고 있는 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모교와 총동창회를 위해 열성적으로 봉사하는 힘은 정말 놀랍고 대단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화 동창생들은 사회 곳곳에서 국가발전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20만 동창을 가지고 있는 총동창회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화’는 그동안 대한민국 최초의 여의사, 박사, 총리 등 ‘여성 1호’를 많이 배출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 분의 영부인도 계시고 최근에는 사법고시 합격률도 전국 5위권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결과를 자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나라 여성계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주위를 돌아보고 돌봄과 정의 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총동창회 역시 그런 뜻에서 금년에 대학원 동창을 정회원으로 하는 회칙 개정과 더불어 더욱 확대된 사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20만 동창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해외 지회 강화를 위해 북미주지회처럼 유럽지회 결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총동창회장님은 현직 ‘의사’ 이신데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가 있으십니까?

보건지식 향상과 국민 건강 개선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예방건강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은 의사로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것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매우 기쁜 일입니다. 우리 이화 의료원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마곡지구 의료원이 완성되면 더욱 이화의 위상을 높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총동창회장 직을 잘 수행한다면 앞으로 다양한 전문직을 가진 많은 동창들이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동창회 임원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의 병 치유하는 사역자 키운 조병채 교수와 제자들



노교수의
회상

사명의식 가지고 치료하는 제자들 보면 감사

조 병 채

의학57, 전 의대 교수(안과),
이대 동대문 병원 원장(의대 년 졸업)

지난 2월 조종남 총동창회장으로부터 ‘이화동창’ 회보에 ‘제자와 스승’이 함께 하는 란에 나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가 어느덧 80해를 넘어 살아오는 동안 존경하는 많은 스승님과 자랑스럽고 대견한 제자들이 있음에 행복하고 마음이 뿌듯했다. 안과 의사로서 1962년 안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인천 기독병원 안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1971년 8월, 이명수 선생님과 김희수 선생님(현재 건양대학교 총장) 두 분이 인천 기독병원에 오셔서 9월부터 학교로 돌아 와 봉사하라고 하셨다.

9월 2학기에 안과 조교수로 임명받고 재직하던 어느 날 나와 안정숙 선생이 함께 김활란 선생님 묘소 (금란동산)에 참배하였을 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활란 선생님께서 신촌 대현동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을 신축하고 1954년 4월 봉헌식 때 ‘우리

가의과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오늘 부속병원을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대학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특유한 사명의식이 있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 세계적인 학자가 나오는 것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우리의 졸업생들이 팀을 형성하여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파고들어가 가르치고 전도하며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역들이 나오길 바랍니다.'라고 하셨다."면서 "안과의사는 빛을 찾는 사역자이고, 눈에는 육안(肉眼, Physical Eye)과 심안(心眼, Psychic Eye)과 영안(靈眼, Spiritual Eye)이 있다. 고로 안과의사는 환자의 시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그의 마음의 병과 영의 병까지 치유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안과의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교육, 연구, 진료에 있어서 초심 때와 같이 최선을 다 할 각오로 임했다. 또한 학생들과 수련의들 교육에 앞서, 또한 환자 진료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수련의와 학생들에게 말하였다.

1. 스승을 존경하고, 선배를 어려워하고 순종한다.
2. 동료를 서로 아끼고 격려하고, 제자들의 교육은 엄하면서 사랑으로 지도한다.
3.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친절하고, 환자의 말에 정성껏 귀 기울여 듣는다.

이 세가지를 명심하여야 오진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음을 말하였는데 이렇게 현재도, 앞으로도, 서로 아끼고 격려하며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안과교실은 발전할 것이다.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늘 잘 따라주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을 볼 때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안과의사로 지도해주신 은사이명수 선생님과 어려운 시기에 병원장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고 박이갑 원장과 나라사랑, 학교사랑, 동료 사랑, 만인을 사랑하며 사는 방법을 솔선수범으로 지도해주신 고 김옥길 선생님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제자들의 이야기

목동병원 건립의 원동력으로 모든 제자들의 사표

김태임

의학74, 전 의대 동창회장

의과대학 시절은 마치 회색빛 하늘처럼 암울하고 불투명했었다. 206개의 뼈의 위치를 외우면서 그 뼈들을 연결하는 근육과 힘줄을 이해했어야 했다. 동시에 뼈와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의 분포를 숙지해야 했다.

늘 시간에 쪼들리고 잠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지도교수였던 조병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늘 힘과 용기를 주셨다. 온화한 모습에 조용하고 다정한 말씨로 우리 학생들을 다독거려 주셨다. 그러면서도 잘못했을 때는 엄하고 단호한 가르침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주셨다. 선생님의 그런 점이 동창 최초의 병원장을 맡아 어려운 시절에 병원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모든 동창들의 숙원이었던 목동병원의 건축을 위해서 노심초사, 혼신을 다하셨다.

목동병원에 들릴 때마다 병원 건축을 위해 애쓰시던 조병채 선생님과 선배님들의 노고를 돌아보게 된다. 선생님은 교수로 연구로 의료 행정가로, 동시에 세자녀의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사표가 되셨다.

의과대학을 창설할 때 여자대학에 의과대학이 왜 필요하냐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다고 들었다. 당시 총장 이셨던 김활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본다. “우리 대학에 의과대학을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에 훌륭한 의과대학이나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다. 능력 있는 학자와 의사를 배출할 뿐 아니라 제대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서 진료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다” 김옥길 선생님께서는 이화는 지식에 앞서 인격을, 기술에 앞서 사랑을 가르치는 배움의 집을 지향하는 대학임을 늘 강조하셨다. 특히 김옥길 선생님은 암투병 중에도 마지막 날까지 목동 병원의 설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셨다.

이러한 대학병원 설립의 의지 때문인지 동창 중에는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

와 헌신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다. 이 지면을 빌어 소개해

보면 1회 졸업생 이홍주 선생님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전 일생을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셨다.

극빈자 진료팀장으로 봉천동, 신림동 등에서 철거민을 위한 순회 진료를 하셨다. 은

퇴 후에는 개척교회를 세우고 사회봉사와 교육에 전념하셨다. 감호소의 재소자와 그들의 가족을 직접 방문 상담하고 위로했다. 현재는 로스안젤레스 근교의 일본인 양로원에 살면서 전도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황연대 선생님(12회)은 자신이 소아마비의 어려움을 딛고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여의사가 되었다. 장애인들의 대모로 정립회관을 세우고 장애인의 권리 향상과 자립을 위해 헌신해온 이야기가 ‘이화동창’ 회보(128호)에도 게재되었다.

이창옥선생님(36회)은 거칠고 황량한 몽고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 병원을 세우고 환자를 돌보며 교회를 짓고 사역활동을 하며 학교를 세우고 교육도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봉사하는 여성’을 키우는 이화의 정신이 세세토록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1980년 대 ‘첫 여성’ 병원장이자 ‘첫 여성’ 주임교수

최규룡

의학 82, 이대 안과학교실 교수

지금부터 꼭 30년 전 이맘 때 이화대학 부속병원 안과 전공의 1년차 첫 등원 길에, 지금은 공원으로 바뀐 옛 보구여관 자리의 동대문 병원 2층 안과 외래에서 처음 조병채 선생님을 뵈었었다. 의대 학부 과목 수업 때에는 가운 속에 얌전하게 여민 옷깃만큼 온화하고 부드러운 나직한 목소리로 강의하시던 교수님이셨는데 전공의 수련을 위해 처음 일대일로 만나 뵙게 되어 조금 긴장해서었던 내게 내린 첫 번째 지도, 교육 order는 “hair cut”이었다.

사실 여고시절 ‘귀밑 1cm 넘지 않는 머리길이와 무



를 밑 10cm 넘어야하는 치마길이' 교육에 주눅들고 난 후 이대 입학으로 맞은 두발과 복장 자유에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 날리면서 인턴 신분으로 응급실 당직부터 병실까지 거침없이 뛰어 다니던 내게, 선생님의 첫 order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태도부터 세밀하고 정교한 안과수술로 이어지는 엄격한 안과학교실 도제수업의 시작이었다.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였던 박에스더 선배 이후로 이어져 온 이화의 전통은 여자라는 이유로 전공 영역에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도전과 성취할 수 있는 학부교육이었다. 방대한 의학지식의 발전 이면에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남녀차별이 남아있던 여타 대학병원들과 달리 우리는 전공의를 뽑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절대 차별 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왔다. 그 덕분에 1980년 대 당시 선생님께서는 국내 유일의 여자의과대학 부속 '첫 여성' 병원장이자, 분과 학회 결성 30년 이상 한번도 여성 을 임명하지 않고 내려온 의대부속 안과학교실의 유일한 첫 '여성' 주임교수이셨다.

그 때는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의료, 의학지식의 급격한 수요 급증으로 의대 정원 증가와 부속 병원 증설로 이어졌던 시기였는데 이화 졸업생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부속 병원 증설 속속 '의대교수'로 키워지던 시기였다. 전공의 수련을 마친 내게 선생님께서는 전공의 마무리 order를 "이대 안과학교실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라"고 내리셨다. 이제는 더 이상 '여성'이라는 희소성으로 배려 받는 시대가 아니라 여성, 이화의 이름으로 훨씬 더 앞서가며 수월성 있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셨다.

1993년 목동병원이 개원하면서 내가 모교 안과 교수로 봉직한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새 선생님께



서는 정년퇴임하셨고 퇴임 후 현재까지 키워낸 안과 교실 제자만 안과 전문의 77명, 그중에 국내외 대학 병원 안과 staff가 17명, 이외에 타과의 수다한 제자들에게도 당신이 그간 쌓아온 경륜과 지혜를 이화의 전형 mentor로서 베풀고 계시다. 이제 우리보고 세계를 앞서나가 lead하라 하신다.

그사이 이화대학 부속병원에서 의료원 체제로 발전 한 모교 의대는 '여자'라는 이유로 소위 '인기' 과 '전 공기회에서 차별받는 외부 병원들과 달리 제한, 차별 받지 않는 거의 유일한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내가 입국한지 정확하게 30년이 지나, 61년차 입국하는 긴 머리의 영민한 눈빛의 새 1년차 제자 전공의를 맞이하면서(그 사이 1년에 1명씩이던 TO가 2명으로 된 것이 징검다리 세대인 나의 유일한 소득이다) 옆 동네 교수님이 "왜 남자 전공의를 안 뽑느냐, 역차별이다"라고 할 때 "저희 이화 제자 한 사람 키워주시면 교환제도 고려해 보지요"하며 당당히 맞받아 치고 있다. 이제 이화의 졸업 전문의 다수가 지역사회 개원의는 물론 다른 의과대학 teaching staff로 진출하고 있는 지금 나도 선생님께서 물려주신 order '이화의 수준을 세계 선도적 leader로 지키라'를 물려주고 싶다.

기획 시리즈 조형예술대학 김혜연 교수(패션디자인)가 추천하는 2013 이화 유망작가

전세계 부호들의 애장품 만드는 대한민국 차세대 디자인 리더 패션디자이너 김현주



대한민국 패션계에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탄생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관련 업계가 동반 성장하며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우리 모두의 꿈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패션 디자인 전공의 김현주 동창에게 그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김현주는 1999년도 패션디자인 전공에 입학했고 석사과정을 마친 직후 2005년 11월, 스타미케팅을 활용한 온라인 B2C 패션사업을 시작하여 자본금을 마련하고, 2008년에 수출 전문 디자이너 브랜드인

'HARRIETTE KIM(해리엇 킴)'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패션사업을 시작하였다.

'HARRIETTE KIM'은 전 세계 극소수인 최상류층과 왕족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브랜드이지만, 수출대상국의 최고급 패션 업계에서는 정평이 나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두바이, 쿠웨이트, 리비아, 러시아 등이다.

김현주의 초창기의 아이디어는 다소 단순했다. 사실 김현주가 만드는 의상은 극도로 여성적인 '공주스타일'로 접근했는데 '진짜 공주' 한테 팔아야겠다는 다

소 허무맹랑한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김현주는 우직하게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갔다.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전국에서 장인들을 모시고, 자체 발주 공정 및 생산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대기업 CEO들에게 전문적인 무역 실무를 배워 각국의 대처 능력을 갖추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해외에 나가 현장 업무를 진행시키며 근성과 끈기로 벼텨 나갔다.

그 해에 김현주는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차세대 디자인 리더’에 선정되었고 그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도 수출 실적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재선정되었다. 정부 포상으로 받은 사업자금을 바탕으로 2008년과 2009년에는 아시아—중동—유럽—미주 지역 순으로 순차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며 고급 바이어를 확보하고 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세계 최고의 패션 브랜드만 참가할 수 있고, 바이어도 선별적으로 엄선하는 세계 유수의 패션 박람회에 국내 패션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참가 자격을 얻었다. 2009년 가을, 김현주가 한국 디자이너 대표로 참가하였던 밀라노 프레타포르테(Milano Pret-a-Porter 2010 S/S)에서는 박람회 4일 만에 수출 계약 백만 불을 달성하고, 현지 전문가들에 의해 ‘Top Designer’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수출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는 현재 ‘해리엇 킴’의 수출액은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중 1위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례 없는 경기 불황 속에 유럽의 명품 오뜨 쿠뛰르(Haute Couture) 브랜드들도 경영 적자에 허덕이다 줄줄이 파산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창의 초고가 의상은 현지에서 ‘없어서 못 팔고 부르는 것이 값이다’라고 알려져 있다.

사업 영역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2011년에는 김

현주의 드레스를 구입한 두바이의 공주가 그녀에게 생활 소품 및 인테리어 개발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TOTAL LIVING 제품군까지 선보이게 되었다. 이제 그녀가 디자인한 의상과 제품은 전 세계 각국의 부호들이 소장하고 있다.

이렇듯 각국의 상류 문화 코드와 전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Culture Marketing, Royal Marketing을 펼치고 있는 김현주는 최고의 디자인 및 제품 개발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상류층 고객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작은 외교관 역할도 하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패션 리더인 김현주는 사업을 계속하며 앞으로 본인이 갚진 노력으로 터득하게 된 “해외 진출 노하우와 세계 각국 현지 실정에 맞는 디자인 및 패션 수출 실무를 관련 중소기업에 적극 전수하고, 궁극적으로는 장학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나는 대한민국 패션 디자이너가 세계 무대에 진출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김현주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 개척자 김현주가 더욱더 기대된다.



김혜연 교수(패션디자인)

서정적 음색, 풍부한 음악성으로 청중과 교감하는 소프라노 박성희(성악01) 성악가



● 안녕하십니까? Vissi d'arte 국제콩쿠르, Padova 국제콩쿠르, Cecina Lirica 국제콩쿠르, Riviera Etrusa 국제콩쿠르, Dini Caravita 국제콩쿠르에서 모두 1위를 수상하며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명 성악가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졸업연도는?

1997년에 입학해서 2001년에 졸업했어요.

● 음악대학 성악과를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소리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의 외조부님은 국창이신 임방울님이시고 외조모님은 광주 인간문화재이신 한애순 명창이셨어요. 그래서인지 그분들의 ‘끼’를 제가 이어 받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저는 국악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서양음악을 택하게 되었고, 성악으로 선화예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음대 성악과를 가게 된 거죠.

● 졸업 후 외국 유학을 가셨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막막한 마음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정말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이탈리아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서 저의 음악 열은 불타오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세계적인 테너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 베니스 밑에 있는 아드리아음악원에 입학하면서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곳에서 디플롬을 따고,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학제인 Biennio라는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밀라노 시립음악원 가곡과와 밀라노 아카데미 오페라과를 졸업하고 나서 연주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국제 콩쿠르에서 모두 1위를 수상하여 기량을 인정받고 나서 베네토주 예술협회 주최 오페레타 ‘친친라’ ‘라 베도발레그라’의 주역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한 경력과 다수의 오라토리아 독창자로 협연했어요. 그리고 베르디 서거 100주년 기념 오페라 ‘리골레토’의 주역,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체코 프라하 자선 음악회 등 유럽무대에서 수많은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일 년에 삼분의 일은 외국 기획사를 통해서 외국연주를 하고 있어요.

●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면서 같은 음악도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2008년에 귀국했어요. 아들을 낳고 나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인성악가와 예술의전당 오페라 가수로 선정되고, 제4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시상식에서 클래식타임즈 특별 상등을 받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무대에서 연주를 해왔어요. 지금은 이화여대, 목원대학교, 선화예고, 경기예고 등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

서 다양한 무대에서 수많은 청중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더욱 멋진 소리를 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한 번은 바로크 음악회를 열어서 그 때 당시의 악기와 의상으로 연주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푸드뱅크>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 ‘사랑나눔 콘서트’를 열고 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사랑하는 내 나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주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 젊은 나이에 많은 경력을 쌓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동안 가장 큰 성과와 보람은 무엇이었는지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무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늘 새로운 작품으로 무대에서야하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보람이 있기도 하지요. 또 몸이 악기인 성악가이기에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할 때, 더욱 발전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느낀 잊을 수 없는 보람은 작년에 세르비아에서 연주했을 때였어요. 낯선 이국에서 혼자 길을 걷고 있는 저에게 가난하고 초라한 집시 거지가 다가오더니 신문에 난 기사와 프로그램을 듣고 와서 이게 너냐고 묻는 거에요. 그리고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장 높은 소리를 내는 것)곡을 가리키며 이걸 네가 노래하느냐고 묻더라구요. 저는 그 나라 사람들 의 문화수준에 놀랐어요.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음악회에 온 거에요. 입장료가 없어서 뒤늦게 들어와 3층 꼭대기에서 보고 먼저 나가야하는 그가 끝까지 남아서 박수를 치며 앵콜을 왜치고 있었어요. 그를 쫓아내려는 직원을 만류하며 저는 기꺼이 그를 위해 <카치니아 아베마



제4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대상 작품에서 주역으로 출연

리아>를 불렀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국내 무대뿐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로서 연주활동을 하면서 인종과 국적은 달라도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로 서로 교감하며 하나가 되어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더없는 감사와 보람을 느끼곤 해요.

● 음대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특차로 성악과에 들어갔는데 성악가가 되기보다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악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이화방송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하여 학원에 다니며 영어를 비롯하여 시험에 필요한 공부를 하느라고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

무리 애를 써도 아나운서의 길은 번번이 저에게 좌절을 안겨주었어요. 스승님이신 메조소프라노 김신자 교수님은 아마도 제가 성악을 계속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으셨을 거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나운서는 아마도 제몫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성악가가 되는 것이 운명처럼 이미 예정된 저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저는 대중을 위한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수들과 같이 노래도 하고, '신춘 가곡의 향연' 무대에서는 유명한 성악가들과 함께 우리 가곡을 부르기도 했어요. 앞으로 훌륭한 우리 가곡들을 좀 더 많이 부르고 널리 알리고 싶어요. 또 조부모님이 모

두 명창이시어서인지, 국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좋아합니다. 지극히 한국적인 음악을 서양음악과 접목을 하며 새로움을 향한 도전정신으로 빼어난 곡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가,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하는 성악가, 보다 깊이 있게 심금을 울리며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 **이대 동창들과 모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대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졸업하고 나이를 먹을 수록 오히려 학교에 애착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오랜 역사와 뿌리 깊은 전통을 이어가며 아름다운 캠퍼스로 빛나는 이화여대 교정을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동창님들과 희망차고 싱그러운 재학생들을 보면서, 이화인이 라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날이 더해집니다. 저는 앞으로 클래식 음악으로 학교에 봉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과의 접촉을

많이 해서 이화여대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이대 동창분들과 언제 어디서 만나든 사랑하고 도와주며 돈독한 친밀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 **앞으로 더욱 좋은 연주를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글. 김선주/불문 65 한국소설분과 회장, 이화동창 편집위원

소프라노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아드리아 국립음악원 졸업 및 동대학원 Biennio 졸업

Vissi d'arte 국제콩쿠르 1위, Cecina Lirica 국제콩쿠르 1위,

Padova 국제콩쿠르 1위,

Dinocaravita 국제콩쿠르 1위

예술의 전당 기획 오페라 마술피리, 코지판 뚜페, 라 베도발레그라,

친친라, 피가로의 결혼, 헨젤과

그레텔,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리골렛또, 라보엠, 사랑의 묘약,

수잔나의 비밀, 호프만의 이야기 주역

헨델의 메시아, 까르미나부라나 독창자.

스페인 마드리갈 2010 음악협회 초청 오페라 마술피리 주역,

2011 불가리아 스트라자고라 국립극장 "리골렛또" 주역

2012 한국오페라페스티벌 "호프만의 이야기" 주역,

2012 이탈리아 카타니아 페스티벌, Alba 국제뮤직페스티벌,

몬테네그로 "Dani Musika" 초청 연주

2012 보건복지부 "푸드뱅크" 홍보대사

몬테네그로 페스티벌에 초청받다



자랑스런 이화동창

국제방송의 전성기 열어가는 딸셋의 어머니

아리랑 TV 사장

손지애

(정외 85)



현재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사장
뉴욕타임즈 서울사무소 취재기자(‘92~‘94)
CNN 서울지국 지국장(‘95~‘09)
서울G20정상회의 준비 위원회 대변인(‘10)
청와대 대통령실 해외홍보 비서관(‘10~‘11)
이대 정치외교학과(85), 연세대 언론대학원 저널리즘 석사(11)
수상/
대통령 흥조근정훈장(대통령실)
한국 참언론인 대상 특별상(한국언론인연합회)
국제인권보도 특별상(홍콩외신기자클럽)

여성으로는 최초로 종합일간지인 한국일보 사장을 지낸 장명수 동창, 여성신문을 창간하고 발행인 겸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계경 동창의 뒤를 이어 전 세계 1억 500만 가구 3억 3천만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으로 취임한 손지애 동창은 자랑스런 이화 언론인 출신이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손 동창은 외국 생활이 라곤 공직자인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4년간 미국 생활했던 것이 전부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영어권에서 살았거나 남편이 외국인인줄 알았다는 필자의 말에 손 동창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전 24년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고, 세 딸을 둔 진짜 토종 한국 엄마거든요." 라며 웃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온 손 동창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습득한 영어를 유지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기보다는 영어 책읽기와 방송시청으로 영어를 자신의 특성이자 장점으로 만들어 가는데 힘썼다. 평생 피아노를 연주하고 가르치셨던 어머니의 권유로 첼로를 전공하여 예원중에 진학했지만 음악은 적성이 아니다 싶어 일반고를 택했는데 다행히 이화여고에 배정이 되었다.

그 때부터 시작한 영자신문반, 영어회화 클럽과 영어옹변 등은 이화여대에 가서도 계속되며 손동창의 진로를 결정해주었다. 이대 영자신문인 'Ewha Voice' 기자로 활동했던 손동창은 담당 교수님의 추천으로 영어 교정 아르바이트를 4년 내내 해왔고, 이러한 인연으로 영문 잡지인 비즈니스코리아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뉴욕타임즈 서울특파원을 거쳐 15년 동안 CNN 서울 지국장을 지냈던 손동창이, 9개월 임시

직인 G20대변인으로 일한 후 청와대 해외홍보비서관으로 발탁되었을 때 다들 정치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런 커리어들이 아리랑 방송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단다.

실제로 2011년 손동창이 CEO를 맡은 후 미디어 외교전의 선두에 아리랑 방송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홍보팀에서는 손동창의 개인브랜드 이미지가 아리랑과 딱 들어맞아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너무나 좋아하고 있을 정도이다.

잘나가는 커리어우먼으로 젊은 여성들의 멘토인 손동창이 여대생들에게 강의할 때 늘 하는 말이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딸셋을 낳은 것이다.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귀한 일이며 나를 세상에 남겨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것 아닌가? 일과 가정 중 선택하려 하지 말고, 출산과 육아는 짐이 아니라 여성의 특권이며 혜택이라 생각을 뒤집어 보라. 남편을 적극 활용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첫 직장에서 만난 동료 기자(이병종 뉴스위크 서울 특파원)와 반대하는 결혼에 골인하여 낳은 세 딸을 모두 모유로 키웠다. 맘며느리로 1년에 일곱 번씩 있는 제사를 도맡아 하며 시부모 잘모신다고 동네 할머니들이 추천하여 '관악효부상(2008)'도 받았다. 그런 손동창의 손에는 반지가 두개 끼워져 있다. 결혼반지와 배꽃이 그려져 있는 이대 졸업 반지이다. "이화여대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고, 큰 세계를 꿈꾸게 한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곳이예요. 대학시절에 영어 연합 써클을 많이 했는데 남녀공학 여학생들은 참 존재감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로 바꾸



어 내는 이화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이화언론인상을 수상한 것도 손동창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력서 항상 제일 위쪽에 써 놓죠. 아마 방송인으로서는 제가 처음 받았을 거예요."

흔한 외국 유학이나 어학 연수도 다녀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영어 잘하는 법'이 너무 궁금해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영어를 공부해야 할 과목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활에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훨씬 빨리 습득할 수 있어요. 귀가 좋으면 유리하구요, 흉내 잘내는 것도 중요하지요." 평범하지만 정 말 맞는 답이다. 특히 엄마인 이화동창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거라고 말해 주세요. 아이들이 여자인 엄마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인지도 이야기해 주시구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기쁘고 즐겁게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손지애 스타일인 '직장 다니며 모유 1년 이상 먹이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소개할 기회가 있으리라.

글. 백수경(신방 79, 이화동창편집위원)



축 하 합 니 다



차귀숙(교육 67)동창

서울YWCA 회장으로 선출

1월 31일에 개최된 서울YWCA(서울여자기독교청년회) 제91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차귀숙 동창이 선출되었다. 더불어 부회장에 조종남(의학75), 정영숙(신방68)동창이 선출되어 앞으로 2년 동안 서울YWCA를 이끌어가게 된다.



신선희(영문 68)동창

성남문화재단 대표 선임

1월 9일 성남문화재단 제 3대 대표이사에 신선희 동창이 선임되었다. 서울예술대 석좌교수인 신 동창은 국립극장장, 서울예술단 이사장겸 총감독을 역임하였다.



정재용 (과교 74)동창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취임

3월 1일부로 임기 2년의 경기도 군포의왕 교육지원청 수장인 교육장으로 정동창이 임명되었다. 서원중학교 교장, 늘푸른중학교 교장,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 장학관을 역임했으며 학교현장에 창의지성교육을 확산시킨 공을 높이 평가받아 공모제 교육장으로 발탁되었다.



이혜숙(수학 71)동창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선임

2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지난 1월 공익재단법인으로 독립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초대 소장에 이대 교수인 이혜숙 동창이 선임되었다.



이정혜(영문 77)동창

한국어보급 유공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뉴욕 교사회 공동 회장인 동창이 2012 한국어 보급 유공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대상자로 선정되어 2월 19일 손세주 총영사로부터 상을 전달받았다.



안정숙(사생 77)동창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취임

3월 4일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취임식을 가진 안정숙 동창은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 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성사중학교 교장, 경기여자 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김영미(사학 79)동창

한국사상사학회 회장 선임

2월 26일 이대 교수인 김영미 동창이 임기 2년의 한국사상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 동창은 이대 한국문화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박은주(수학 79)동창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으로 선출

2월 14일 한국출판인회의 제 8대 회장으로 김영사 대표인 박은주 동창이 선출되었다. 여성 회장이 선출된 것은 두 번째로 앞으로 2년 동안 430여 개 단행본 출판사를 이끌게 된다.



최경실(장미 84)동창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대통령 표창 수상

월 22일 이대 색채디자인연구소 소장인 최경실 동창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세종문화회관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숙진(신방 86)동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취임

1월 1일 부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에 이숙진 동창이 취임했다.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을 역임한 이 동창은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대됐다.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이화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다

아래 글은 작년 10월 북미주지회연합회총회에 참석한 전 이화국제재단 이범선 이사 부부를 인터뷰하여 작성한 원고이다.(편집자 주)



시계방향으로 사진 왼쪽 위가 이범선 박사,
그 옆이 장녀, 손녀 그리고 이향원 동창

1970년 미국 뉴욕에서 이화국제재단이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범선 박사는 아내 이향원(의학 51) 동창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를 돋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다.

고 김활란 전 총장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다고 말하였지만 훗날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생각해보겠다는 말도 없이 거절한 바 있는 이 박사였기에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아마도 아내 이향원 동창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2011년까지 이화 곁을 떠나지 않고 국제재단 이사직을 40여 년 간 맡아왔을 것이다.

이 박사는 경영학과 회계학 전공으로 서울대 졸업 후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뉴욕의 롱아일랜드대학(Long

Island University)에서 회계학 교수로 부임하였다.

1950년 대 당시 한국인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향원 동창의 값진 내조의 힘이었다.

물론 이 동창 역시 의과대학 1기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으로 뉴욕 병원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부인과 의사로써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밤낮이 없는 의사’라는 직책과 ‘자녀 출산’이라는 절대 명분이 함께 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지금 슬하에 3녀를 두고 있는 이 동창은 출산과 함께 자신의 일터를 낮 일만 하는 ‘병리과’로 옮겼다.

팔순을 훌씬 넘긴 연배임에도 이 동창은 아직도 곱다. 맑은 음색의 목소리만듣고는 환갑도 지나지 않은 것 같다. 동창회에 대한 열정도 남다르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바쁜 병원일 틈새로 동창회에 참석하려고 딸 아이를 데리고 나갔던 적도 있다.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창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겠지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표현이란 것이 왜 밤낮 후원금 내는 것이냐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화국제재단에서 재무담당 이사로 40여년을 한결같이 봉사해온 부군 결을 지켜온 아내 이향원 동창의 말이다. 2011년부터 어디선가 자주들어본 말이다. 신방과 선배(1기) 장명수 이사장께서 총동창회 행사 때마다 위의 말을 하여 참석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었다.

1988년 ‘이화’는 ‘이화 10년발전위원회’을 비롯하여 이화국제재단 발족 때부터 한결같이 ‘이

화사랑’을 표현해온 이범선 박사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어쩌면 ‘이화’도 그 분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1960년대 한인이민자가 많지 않던 시절, 유학생으로서 뉴욕한인회 설립에 기여를 하고 한인회장을 지내는 등 뉴욕의 한인 이민사회에도 중요한 기틀을 놓았던 이범선 박사는 인터뷰 내내 아내의 얘기에 귀기울이고만 있다가 불쑥 한 마디를 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 아내 이향원 박사에 대한 사랑이 이화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하나니까요.”

2003년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아내와 함께 ‘이화’를 찾았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범선 박사 부부.

오늘 이 두 분을 만난 특별한 인연 때문에 아마도 나는 평생 ‘이화’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나는 오늘의 이 특별한 만남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이범선 박사 내외분께 성경 말씀을 전하고 싶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 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2:1-6)

글. 유영선(신방75, 총동창회 흥보부장)

96세의 나이에 더욱 그리운 모교, 이화학당

정준희 (이화여전문과 1941)

아래 글은 현재 미국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96세의 정준희동창의 2남 김명원 씨가 어머니가 항상 그리워하며 회고하는 '이화'에 대한 이야기를 구술한 것을 정리하여 총동창회 홍보부로 보내온 것이다.(편집자 주)



나는 일제 치하에서 이화보통학교와 이화고등여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까지 졸업한 '이화여성'이다. 한국나이 96세로, 미국 남부에 있는 조

지아주 애틀란타시의 북쪽에 있는 양로원에서 7년째 살고 있다. 삼형제 중 막내인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3·1 운동에 가담한 것이 일본인 순사들에게 알려지자 충청도와 서울 등지로 도망다녔고 그동안 우리 식구는 여기저기 떠돌며 살다 서대문 뒤 북아현동 가는 길에 있던 한 선교사 집 별채에서 살게 되었다. 마침 집주인인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미국 영사관에 소개해줘 덕수궁 후문에 있는 미국 영사관 안의 사택으로 이사갔다. 아버지의 일은 관복을 입고 영사관을 지키는 것이었다.

영사관으로 이사한 일 년 후 이화보통학교에 다녔던 옥동 언니가 나를 학교에 데리고 가시험을

보게 했다. 지금의 초등학교로 6년제였다. 그때는 이화의 모든 학교들, 즉 유치원, 보통학교, 고등여학교, 보육학교, 여자전문학교가 다 정동교회 가까운 곳에 모여 있었고 보육학교가 교회에 제일 가까이 있었다. 지금 이화여고가 있는 자리다. 정동교회는 한국의 첫 감리교회였다. 영사관 주소는 정동 10번지였고 학교는 32번지, 교회는 34번지였으니 집에서 걸어서 불과 사오 분 거리인 이화와의 인연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학교에는 매달 1원씩 학비를 냈다. 그때는 쌀 한 가마에 6원이었으니 1원이 큰돈이었으나 아버지는 항상 선뜻 내줬다. 옥순이와 영순이가 나와 6년을 학교에 같이 다니며 친한 친구가 되었다. 주일이면 정동감리교회 주일학교엘 갔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화전문학교 다니는 임길재 선생님이었다. 나중에 간접으로 잡혀 사형 당한 김수임이 임선생님과 친한 사이로 여자전문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가면 반기 곤 했었다.

우리가 졸업하면서 이화 보통학교는 문을 닫았

다. 옥순이는 상업학교로 진학했고 나하고 영순이는 이화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이화보통학교를 같이 졸업한 학생들 중 이화고등보통학교로의 진학은 나와 영순이 뿐이었다. 이화여자전문학교는 지금의 대학으로 4년제였다. 입학시험에서 문과지망생 40여 명이 시험을 보고 30여 명이 합격을 했다. 이화여고에서 문과로 진학한 사람은 나와 차재순, 이복희, 김유숙이었다. 우리 넷은 8년을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된 것이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종교학을 가르치신 박은혜 선생님이었다. 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때 전문학교는 정동에서 신촌으로 이사갔었다. 당시는 만주사변이 한창이었고 그때부터 교가도 일본말로 부르게 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신궁참배를 강제로 하도록 했다. 3학년 때 김활란 교장이 조선총독부에 불려갔다 오셔

서 하는 말씀이 우리 학생들 교복을 입히라고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전교생이 모여 교복을 못입겠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호소하셨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다. 그러나 배운 사람답게 응하라. 그대의 시대에서 적응을 현명히 하는 것이 배운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신 말씀에 감동되었지만 우리는 계속 교복은 입지 않을 것을 고집했다. 결국 우리는 교복을 입지 않고 아래 신입생부터 교복을 입하게 되었다.

그해 미국 선교사들은 모두 본국으로 쫓겨갔다.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다. 아펜젤라 교장을 비롯해 강제로 쫓겨 나는 선교사들은 눈과 얼굴이 통통 부을 정도로 울고 또 울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슬픔에 잠겼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런지 앞이



1938년 4월 민숙례 최종옥 가사과 동기 김정순 정준희 손경춘 차재순 김유숙(왼쪽부터)



1939년 본관서쪽 영학관아이들 김정순 이인포 홍숙영 정준희 김유숙 차재순 김영자 손경춘 최신실 이여곤 이복희

캄캄했다. 시국은 점점 더 나빠지고 일본인들의 극성은 더 심해지고 학교에도 본교 정문 앞에 일본 말만 사용하라는 플랭카드를 걸고 우리들이 조선 말을 하면 야단을 쳤다.

3학년 말에는 30여명이 입학했던 문과에 13명이 남았는데 모두 학교 안의 기숙사에 들어갔다. 그

중 외부에서 온 아이들, 즉 황해도 재령서 온 최신실, 이여곤, 함경남도 함흥에서 온 김영자, 강원도 철원에서 온 최정옥, 원산 루시고등여학교에서 온 홍숙영 그렇게 다섯은 진선미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가 문과 기숙사로 옮겨왔다. 차재순은 집이 의정부였는데 이미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다. 황해도 출



신으로 서울서 살고 있던 손경춘과 서울 출신 김정순, 이복희, 이인포, 김유숙, 장혜옥 그리고 나는 그 동안 집에서 통학을 하다가 기숙사로 들어갔다. 일제 치하라는 피하지 못할 어두운 그늘이 항상 있었으나 젊고 생기찬 여성들이 한 지붕에서 같이 먹고 지내니 역시 즐거운 시간도 많이 있었다. 김상용 문과과장 선생님의 인도로 선배언니들과 등산을 다니기 시작하다가 주말마다 경준이, 정순이와 등산을 갔다. 주일이면 정동교회와 연동교회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며 봉사를 했다.

3월 16일은 우리들의 졸업날이었다. 문과, 가사과, 음악과 그렇게 세 과가 모여 졸업식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졸업생은 흰 치마와 저고리를 입는데 이날은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오라고 하여 모두 그렇게 입고 왔다. 그런데 졸업식에 입을 술 달린 사각모와 가운을 각자가 한 벌에 오십 전에 빌

려서 가져왔는데 총독부에서 입지 못하게 하였다. 우등상을 우리 문과에서 원산 루시고교에서 온 홍숙영이 받았다. 그리고 사년 개근상을 문과에서만 둘이 받았는데 나와 이복희였다. 복희와 나는 고등학교에서도 사년 개근상을 받았었다.

졸업 후 즉시 동경으로 가 간호원 공부를 하다가 2차 대전이 나는 바람에 1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고, 감리교회 홍종숙 목사의 소개로 함경북도 청진의 고아원에 가서 2년을 가르쳤다. 그리고는 연동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던 청년 건축가 김한성과 결혼을 한지 1년 만에 해방을 맞았다. 이곳 애틀란타에도 이화 후배들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양로원을 찾아온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런 이화 식구들이 대견하고 나도 그중 하나인 것 이 자랑스럽다.



새해를 맞아 자녀들과 함께 한 정준희 동창. 슬하에 2남1녀와 손자 7명 중 손4명을 두었고 모두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

총동창회사랑과 발전을 위한 한마디

총동창회 회칙 개정으로 금년부터 각 대학원 및 ALPS, 평생교육원,

이영회 등의 졸업생들이 정회원과 특별회원이 되었다.

이화의 자랑스러운 새 가족들의 총동창회 사랑과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1. 이화 동창의 자랑스러운 새 회원이 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2. 2013년도 계획과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3. 총동창회에 주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화동창의 글로벌화를 기대하며

이남숙

(대학원 동창회장)



1. 대학원 동창들이 이제
야 총동창회의 정회원이
된 점은 너무 뒤늦은 감
이 있습니다. 이화의 전
통을 고수하는 것은 좋지

만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여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의 학부 출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다른
나라 출신의 대학원 동창들이 많이 생겨 이화
동창의 글로벌화가 될 것이며,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이화의 동창들이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2. 각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로 대학원 동창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좀 더 활발히 소통할 수 있
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학문적 내용을 바탕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모임을 마련하여 좀 더 활동적
인 대학원 동창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적은 장학금을 받고도 동창회에 진심어린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동창들이 있어 오히려 감
사한 마음이 들고 장학기금을 더 증액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3. 이화학당의 전통을 지키면서 이화를 사랑하
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총동창회의 모든 동창
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모두가 바쁘게
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총동창회도 회의 진행시
간이나 방법, 이화인의 밤 행사 내용 등 여러 면에
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좀 더 새롭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창들 활약의 힘으로 ‘이화’ 명성
드높이길**

양수화
(교육대학원 동창회장)



1. 지면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1886년 이화학당의 설립 이래 동문 간 대화의 창구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동창회보는 늘 동문 간의 소식과 모교 소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소통하는 반가운 소식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동창회의 회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정식으로 이화 동창회원이 되었다고 하니 더욱 반갑고 축하할 일입니다. 더욱 모교에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것입니다.

2. 저 개인적으로 음악대학과 교육대학원을 입학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늘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도전정신으로 본 과정들을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학의 권위와 명성은 졸업생들의 역량과 업적에 의해 평가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화가 배출한 졸업생은 20만 명에 이릅니다. 졸업생들이 각고의 노력과 패기로 성실히 성장하여 각계각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어디서든 자기만의 특색과 패기를 갖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오늘 이화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 동창들은 모교에 대한 애정과 서로 간의 유

대감이 어느 대학보다도 깊고 끈끈하다는 것은 단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총동창회를 통한 동창과 모교와의 훌륭한 연대관계는 대학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번 회칙 개정을 통하여 총동창회가 더욱더 새로운 활력과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모교에 지속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여러분과 총동창회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총동창회가 버팀목 되어 함께 성장하는 이화인으로

문정숙
(이화여대평생교육원 발전후원이사회 회장)



1. 이화 동창의 새 회원이 된 소감은 한마디로 총동창회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이화평생교육원에서 많은 과목을 학습하고 이화의 일원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화 가족이라는 일념으로 지내왔지만 공식적으로 동창회 새 가족으로 입회되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큰 숙제를 풀었다는 느낌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한 올타리 안에서 함께 섬기며 교육받은 각 기관들이 하나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자랑스럽고 발전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화 총동창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이화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2. 본 이화평생교육원은 한국 최초로 대학평생 교육원으로 개원하여 이제는 이화 U-/"College(인생 2기 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점은행제, 자격증과정, 각 분야 전문교육과정 등등...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전후원이사회는 16년 전 창립되어 이화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구성원 상호간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사랑과 화합의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력하지만 매년 이화발전기금을 모금하며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소외된 곳을 돌아보아 긍정적인 삶의 활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지적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삶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위해 매년 명사 초청 특별 세미나와 국내 산업현장 탐방과 역사유적지 답사와 해외여행을 연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은 수강 등록 홍보와 거의 매 학기 수강하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희망과 용기와 활력을 주는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동창회 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롭게 이화동창회원으로 입회 되신 모든 분들이 127년의 역사와 전통의 이화 안에서 총동창회의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로 도약하는 이화공동체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잘 품어 주시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동창들께서 평생학습시대에 이화평생교육원에서 함께 수강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동창회에서

계간지로 발간하는 '이화동창'은
동창님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연회비로(매호 지로용지 내재)
출판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호에

연회비납부자 명단이
제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동창님들께는
발송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편료 및 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혜량하시고 연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8세에 이룬 소망, 학사모 쓰고 당당히 이화동창으로



지금 인터넷에 ‘고복희’라는 이름자를 치면 두 사람의 ‘고복희’라는 이름이 뜬다.

모드라마 여배우의 극중 배역과 58년 만에 이대학사모의 주인공이 된 78세 할머니!

1955년 가정학과로 입학하여 올 2월 소비자인간발달학과로 이화의 졸업장을 받아든 선배님은 이제 가정대학 동창회 아령회의 신입생으로 아령당에 발을 들여놓으며 환하게 미소를 지으셨다. 스무 살에 접어둔 대학 졸업의 꿈을 이루었기 때문일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선배님의 두 눈은 여배우의 그것보다 아름답게 빛났으며 누구보다 행복해보였다.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화의 품에 안기기까지 참으로 긴 여정이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학창시절, 주관과 집념으로 각오하고 공부하라는 김활란 박사의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 하셨다.

2003년, 학교의 금혼 학칙이 폐지되어 계기가 마련되었고 건강과 가족의 후원 또한 따라주었기에 뒤늦게 복학할 수 있었다. 대학원 기숙사 생활 1년과 원룸 자취 2년의 유학생 활동 안 후배 교수님의 배려와 격려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구지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동창회에 나와 같은 해에 학교를 다녔던 선배들을 만나서 옛 시절로 돌아가 아령인으로 함께하게 되니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며 소녀 같은 목소리로 아령회 입회 소감을 발표해 주셨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언젠가 복학하리라’는 꿈을 실천하신 용기로 타에 귀감이 된 인생, 삶으로 감동을 보여주신 선배님 앞에 고개가 숙여진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선배님과 오래오래 동창으로 함께 하는 꿈을 만들어가고 싶다.

글. 유정희(의직 83)

선교사 두 가정, 성도 한 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45명으로 폭발 축복을

서은주(불문85), 김효수 부부 선교사
자녀 | 김용인, 김효은



얼마 전 한국음식으로 이웃 전도 초청 잔치를 치렀습니다. 식재료를 한국서 친구 모녀가 공수해 와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날은 하루종일 비가 쏟아졌습니다. 음식을 옮기는 동안만 비가 그쳤을 뿐입니다. 초청받은 이웃들은 아마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비가 내리는데 가야할까 말아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로이스 목사가 미안한 마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 달을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꼭 와야 할 사람만 오면 된다. 오히려 비가 온 것이 다행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상 외로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음식이 모자랄까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냉냉한 것 같은 이곳 사람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음식 초대에 놀라고, 준비된 음식에 놀라고, 교회에서도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것에 놀라서 그동안 관계와 관심에 굽주린 사람들의 가슴이 열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에도 예배당이 가득해서 주일 식사를 마치고 저녁이 되서야 헤어졌습니다. 모처럼 만난 연인처럼 밀린 감정들이 주체를 못했습니다. 로이스 목사도 흥분을 감추느라 애를 먹었고, 그 날 밤잠을 들지 못했답니다. 그의 후원교회 목사님이 영국에서 급히 날아와 이 선교 보고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선교사 두 가정과 성도 한 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45명(성인 35명)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돈 있는 사람에게 강제적 세금을 걷어 실업자들에게 공평 분배하려는 일명 복지국가입니다. 저희 비자가 종교 비자라서 성직자에게 부과된 매월 570유로 사회보장세를 내야하는데 낼 돈이 없습니다.

벌금이 부과되거나 3월에 비자 갱신을 못해 귀국하게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며 후원교회와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온 무슬림 여인이 이웃 전도 초청 잔치를 통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무슬림 남편과 딸도 함께 나옵니다. 이슬람은 남자의 종교라고 숫어합니다.

현재 교회 구성원은 북아프리카 사람들을 포함

해서 9개국 출신입니다. 여러 가정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수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출석 교인이 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새로운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공간을 찾을 수가 없고 ‘희망의 항구 교회’는 벌써 목회자 사례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립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저보다 스무살 어린 로이스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함께 개척할 수 있는 것도, 그가 요즘 옥한흠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책을 보면 생각과 설교 방향이 바뀌어 가는 것을 보는 것도 보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시인의 시처럼 교회 개척이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세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셨지 저희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삶과 인생이 담긴 후원금과 정성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기도제목

- 우리의 염려함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심을 의지하며 재정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위해
- 멀리 있는 두 아이를 위로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즐겁게 해주소서.
- 새로온 사람들이 잘 정착하고, 새로운 가정교회 그룹이 세워지도록
- 후원교회와 후원자를 소개받도록

연암의 실루엣1

조한숙

국문69

이대 대학원 졸업

2004년 수필집『초록빛 은유』로

제23회 한국수필문학상 수상

2013년 제31회 현대수필문학상 수상

제7대, 8대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

(에세이문학) 발행인 역임

현재 :

국립 한경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국제펜클럽, 한국문인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

수필문우회, 에세이문학작가회, 이대문인회,

송현수필문학회 회원

저서:

수필집

『초록빛 은유』, 『네프로네 피스가 있는 풍경』 외 공

저다수

논문

〈우암(尤庵) 선생 계녀서(戒女書)의 수필성 연구〉

이봄날,

연암과 함께 산책을 한다.

조선 시대 최고의 문장가, 연암 박지원(1737~1805)과 함께 걷는 길은 몇 시간째 걸었음에도 지루하지가 않다. 그분의 고담한 인품을 사랑하며, 고단했던 삶의 여정을 가슴 아파하며, 시문(詩文)을 이야기하고 걸어가는 길은 향기롭다. 그분의 올곧은 성품과 그가 남긴 수려한 문장에 빠져 들기 시작하면 그와 나누는 이야기가 끝없이 풀려 나간다.

어느 분은 나에게 말할 것이다.

이왕이면 현대의 멋지고 젊은 작가와 데이트할 것이지 하필이면 그렇게 캐캐묵은 조선시대 문장가인가. 그것은 모르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최근에 서점에 들러 본 적이 없는 분이다. 그는 요즈음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다. 대형 서점의 눈에 잘 띄는 판매대에 가 보면 틀림없이 연암에 관한 책들을 만날 수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방에도 연암에

관한 책들이 10여 권 놓여 있다. 연암의 둘째아들 박종채가 아버지의 언행을 기록한《과정록》이 근래에 국역되어 출간되었다. 그 책《나의 아버지, 박지원》을 비롯해서《열하일기》완역본 3권,《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연암박지원과 열하를 가다》등, 그 외에도 사고 싶은 책이 몇 권 더 있다.

연암은 인기를 뒷받침해 줄 만큼 안과 밖이 꽤 멋진 분이다.

훤칠한 키에 풍채가 좋고, 날카로운 눈매와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을 제압하는 위엄이 있으며,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그 소리가 담장을 넘어 이웃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30여 년 전 이야기다.

그의 명저《열하일기》를 읽으면서 연암을 알기 시작했다. <일신수필>이라는《열하일기》속의 한 편에 마음이 끌리면서 읽고 또 읽고 그랬었다. 수필을 전공하던 대학시절, 자연스럽게 연암과 친해졌고, 일신수필이라는 그 제목을 예사롭게 보아 넘기지 않았었다.

마음에 두던 그《열하일기》를 중국문학을 공부하는 우리 팀, 충이회에서 작년부터 또 읽기

시작했다. 국역본과 한문본을 함께 읽어 나갔다.

연암처럼 세밀하고 사려 깊고 적확한 표현을 하는 문장가가 조선에 또 있을까.《열하일기》를 읽어 나가면 그 치밀한 관찰력과 박학한 지식과 새로운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호기심에 모두들 혀를 내두른다.

이 봄날, 연암과 산책하는 길은 향기롭고 유쾌하다.

그는 자극히 작은 풀, 꽃, 새,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극한 경지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하찮게 볼 수 있는 그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했다. 미물의 삶 속에서 우주의 원리를 터득하기도 했다.

그는 성품이 호방하고 대범한 듯이 보이나 섬세하고 따뜻했다. 정말로 그런 멋쟁이가 지금 까지 살아 있다면 그를 존경하는 마음에 단숨에 찾아갔을 것이다.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글을 사랑하는 치열함까지도 배우고 싶어 찾아뵈었을 텐데….

그러나 그를 사모하는 팬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바람에 문 앞에서 오랜 시간 서성거리다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2013 신입 동창환영회 개최

총 21명에게 장학금 수여

총동창회는 3월 9일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 총회 개최에 앞서 약 3천 5백여 명의 2013년도 신입 동창환영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작년 8월과 지난 2월에 졸업한 2013년도 신입 동창들이

총동창회에서는 처음으로 선배들과 함께 자리한 이 날, 박관순(법학 72) 법대 동창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신입동창들이 사회에 나가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여러 가지로 총동창회가 커다란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선후배간에 돈독한 교류를

16대 총동창회임원 명단

고문–윤순희(교육 65), 김순영(약학 62)
회장–조종남(의학 75)
부회장–박유나(도예 81), 조경원(교육 75)
감사–유희숙(법학 65), 손종수(물리 72)
총무–김효신(의학 84)
서기–박귀천(법학 95), 한재욱(수학 79)
회계–이주연(경영 97), 황영남(독문 75)
문화부장 – 박경임(식영 73)
사업부장–김계주(불문 78)
재정부장–이선규(정외 74)
음악부장–계명선(피아노 85)
홍보부장–유영선(신방 75)
회우부장–이경옥(체육 80)
지역부장–이혜양(식영 79)
선교부장–김미순(기독 75)
정보통신부장–성시열(의학 81)
인문대학회장–김혜원(불문 68)
사회대학회장–김이경(문정 77)

자연대학회장–변희숙(생명 73)
공과대학회장–조혜영(컴퓨터 85)
음악대학회장–방명혜(기악 67)
조형대학회장–남은숙(생미 80)
체육대학회장–장혜란(체육 74)
사범대학회장–김영주(유교 71)
법과대학회장–문미란(법학 80)
경영대학회장–임혜란(경영 78)
의과대학회장–윤석완(의학 76)
간호대학회장–김진향(간호 73)
약학대학회장–정준순(약학 72)
생활환경대학회장–임정희(가관 79)
국제학부회장–이동은(국제학부 05)
대학원회장–이남숙(대학원 79)
교육대학원회장–양수화(교대원 74)
디자인대학원회장–황지현(디대원 91)
사회복지대학원회장–조경애(사복대학원 07)
정책과학대학원회장–최영은(정책대학원 08)



통해 함께 어려움과 지혜로움을 나누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하였다.

답사를 한 이미나(자연대학) 신입 동창은 '신입생으로 입학하면서 우려하였던 이화여대에 대한 이미지가 끈끈한 우정과 진심으로 선후배가 서로 위하는 모습, 자립심과 책임감을 키워주는 학교, 모두 함께 봉사에 힘쓰는 풍토 등을 보면서 모두 변하였다'면서 '아름답고 멋진 캠퍼스가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었고 이화에 속해있다는 소속감에 너무 행복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선배님들께 받은 응원 및 지원을 저희 후배들에게도 전해주고, 저희 또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하겠

다'는 답사에 선배 동창들은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이화의 선후배로 만나게 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이화의 정신으로 사회와 가정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길 바란다'는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격려와 함께 이정하 대학원 과학교육과 등 총 21명의 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성악 01) 동창의 봄의 왈츠 등 멋진 축가를 들으며 선후배 간의 돈독한 우정을 나눈 환영회를 마쳤다.

정기 임원회에서 정기총회 보고 및 안건 논의

총동창회는 지난 2월 14일 정기 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추경 예산안과 사업계획 심의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였다. 특히 정기총회를 위한 준비에 앞서 2013년도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2012년에 이어 ‘제 2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적극 지원하며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회를 9월 11일(예정)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서 통과를 기대하는 회칙 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총동창회 회칙 개정으로 회원수급증

2013년도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는 총동창회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확정되었다.

주된 내용은 정회원에 이화여자대학교 각 대학원 졸업생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시대변화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졸업생을 정회원으로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번영한 것이다. 준회원도 기존 회칙에서의 대학 및 대학원 2년 이상 수료를 1년 이상 수료한 사람 중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개정하여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그동안 모교에서 심혈을 기울여 여성 특별교육으로 활성화시킨 ALPS, 평생교육원, 이영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 특별회원이 되었다. 이번 회칙개정으로 총동창회는 20여 만 동창을 아우르게 되어 더욱 활기찬 모임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교부 소식



단기선교 학생 환송예배

구립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락방 3층 예배실에서 단기선교를 떠나는 재학생들을 위한 환송예배가 있었다.

지연숙 총동창회 선교부장(사회82)의 사회, 김은경 동창(성악62)의 찬양인도, 김옥광(섬예80) 조형대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한 예배에서 모교 교목실 양현해 목사(기독교학과 교수)의 ‘없음과 모름’을 주제로 하는 설교가 있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이라는 자연의

재료로 만드신 인간은 자연과 다른 일부가 아닌 자연에 의존하는 존재로 아름다운 자연 질서를 보존 유지하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과 선교지에 나가서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보고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요 업적’이라고 보면 무에서 창조된 내가 있듯 없는 것이 정상이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총이므로 단기선교 학생들도 ‘내 이론, 나의 의’ 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핵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에 대

해서도 욕심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힘쓰며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듣기 바란다는 권면의 말씀이었다.

이어서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격려사와 김경수(영문 81) 선교사(몽골)의 선배로서의 체험 격려가 있었다.

김선교사는 “단기선교로 나가는 며칠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으로 그냥 이대 생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왕국’의 대사임을 기억하고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여 현지인들이 ‘자신을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받도록 노력하며 말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현지인과 팀원들을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매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중인의 삶을 살려면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를 보게 될 것이라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민명홍(화학71), 유병국(간호75), 박혜원(영문79), 김혜경(불문82), 김은경(성악 04) 동창선교사들과 선교부 동창들이 함께 겨울방학동안 단기선교를 떠나는 에그리나 발레 팀과 노래 선교단 소속 학생들을 격려하고 예배 후에는 총동창회에서 후원한 애찬을 나누었다.

이화동창선교사기도수첩 펴내

2013년도 이화동창선교사기도수첩이 새로 발간되었다.

2001년 5월부터 해마다 발간되어온 기도수첩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140여 명의 이화동창선교사 명단과 기도제목이 실려 있다. 총동창회 선교부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대 후문에 위치한 다락방 1층에서 모여 모교와 동창선교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2013 선교부 연간 계획

2월 28일 이화동창선교사기도수첩 발간

3월 26일 선교부봄 수련회

4월 26일-27일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LA 공연)

5월 21일(화) 이화 창립 감사 찬양예배

6월 18일(화) 단기선교 학생 환송예배 및 동창선교사와의 만남

9월 선교부 가을 수련회(예정)

12월 5일(목) 이화가족 성탄예배

12월 17일(화)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

기타 / 동창선교사들에게 동창수첩 및 달력, 성탄선물 발송과 현금

대학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사범대학

회장 김영주(유교 71)

신년하례식 겸 정기모임, 장학금 전달

지난 1월 12일 사회생활과 박경주 동창회장이 운영하는 '하모(02-515-4266, 한정식)'에서 신년하례식 겸 1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2월 18일 모범적이고 창의적이며 훌륭한 리더가 될 자질이 있는 재학생에게 수여되는 사범대학 동창회 2013년 장학금(두 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을 영어교육과 4학년 강수연 학생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김영주 사범대학 회장을 비롯하여 8명의 각과 회장단은 2월 27일 충남 계룡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계룡산자연사박물관(042-824-4055)을 탐방하였다. 과학교육과 조한희 동창회장(77)이관장으로 있는 이 박물관은 국내 최대 규모로 보석, 동물의 세계, 바다의 세계, 식물의 세계, 곤충의 세

계, 미라전시관 등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전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사회과학대학

회장 김이경(문정 77)

정기모임 및 2013년 사업계획서 확정

구립 6일 모교 ECC 케세이호에서 각과 회장단 12월 정기모임을 갖고 차기회장 선출과 2013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및 연회비 인상 건을 논의하였다. 이날 문현정보학과 김이경 회장을 사회과학대 동창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각과 연회비를 사회과학대 동창회 장학 재원을 위해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오찬 후 참석자 전원이 대강당 성탄예배에 참석하였다.

2월 16일 모교 ECC 케세이호에서 2013년도 들어 첫 번째 정기 모임을 가지고 신구 회장 이취임 및 인수, 인계를 하였다. 이양준(정외 70) 전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신임 김이경(문정 77) 회장은 이날 2013년 사업계획에 총동창회 주최 바자 행사 참가를 추가하고 진행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재확인했다.

앞으로의 정기모임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24일(수) 케세이호/ 사회대 학장 및 각과 학부장 초청 오찬 모임. 교체된 각과 동창회는 신구 회



장이 참석하며 신임 회장은 퇴임회장과 학부장에게 증정할 선물을 준비함

5월 11일(토) 11시 한국가구박물관 관람/ 2013 올해의 이화인과 각과 전임 회장 초청.

5월 31일(금) 창립 127주년 기념식 및 동창의 날 행사 참석

9월 11일(수) 총동창회 바자회 참가하고 26일(목)은 모교 '이화 나눔 가게' 1일봉사.

10월 하순 모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이 초청하는 오찬 모임 참석. 이날 총동창회 주최 '이화인의 뱈' 행사 티켓을 각과 동창회장에게 배분.

11월 25일(월) 오후 6시 총동창회 주최 '이화인의 뱈' 행사에 참석.

12월 5일(목) ECC 케세이호/ 201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후 성탄예배 참석.

약학대학

회장 정준순(약학 72)

1월 임원회 및 신년하례회

1월 9일 오전 11시 서울 파레스 호텔 스카이볼룸에서 임원회 및 신년하례회를 43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장현숙 고문(11회)의 기도와 문화부 중창단의 '시온의 영광' 찬양으로 시작하여 정준순 회장(23회) 새해인사, 이경림 약대학장(32회)의 학교소식, 김

순영 고문(13회)의 격려사가 있었다.

정준순회장은 그동안 동창회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동참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이경림학장은 약대교수님들의 노력으로 6년제 교과과정, PHC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고 올해 약대에 제약 산업과 가신설되었다고 말하였다. 김순영고문은 계사년은 뱬의 해로 뱬은 앞으로 만 간다고 하니 동창회의 모든 사업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각부 사업계획 보고와 안건토의로 1부 회의를 끝냈으며 2부 오찬은 생일을 맞이한 동창들의 케이크 커팅과 최혜정 고문(1회)의 건배 제의로 시작되었다. 오찬 후 참석 동창들은 덕담과 시낭송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교가제창과 기념촬영을 하고 폐회하였다.



경영학과

회장 이봉학(81)

과창립 50주년 맞는 2014년 위해 다양한 논의

2월 25일 동창회 운영위원회 '이화경영 II'의 신년 모임이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Star China'에서 열려 새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격려와 덕담이 오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2월 18일에는 동창회 임원진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신임 김성국 경영대학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2014년 경영학과 창립 50주년을 의미있는 해가 되도록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동창회는 올해 졸업생들에게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을 전달하였다. 이날 논의된 동창회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동창회와 재학생들 간의 정기적인 만남으로 동창회에 관한 설명과 선후배 간 대화가 필요하며 둘째 금융, 제조, 교육

등 각계각층에서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선배를 초빙하여 취업 진로 멘토링 행사를 실시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난 2월 25일에는 대치동 '우미각'에서 동창회 전임 회장 및 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이화경영 I' 신년모임을 가졌다.

교육학과

회장 정미경(79)

이화교육네트워크 정기총회 및 신년모임

지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겸한 정기모임을 구립 1일 본교 진관 101호에서 가졌다. 이 날 'Sommelier와 함께하는 Wine의 세계' 강좌를 마련하여 김시균 소믈리에(신세계 L&B 사업개발팀 팀장)의 이론과 실제 테이스팅 강의로 Wine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었다.

1월 5일 이화의 교육학 전공자들이 함께하는 신년 모임 및 이화교육네트워크 정기총회가 본교 진관 101호에서 있었다. 교육학과 전체 동창(학부 및 대학원 교육학과와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교육행정 전공)이 함께 하는 열려있는 새로운 성격의 동창모임으로서 지난 1년 동안 매달 첫 토요일에 다양한 주제로 정기모임과 탐방을 했었다. 전, 현직 교수와 동창 및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립 1주년 정기총회와 이화교육인을 위한 신년모임을 가졌다.

불문과

회장 장혜경(73)

독도 사랑 ‘동해연구회’에 백만 원 후원

구름 12일 이계영 동창(18기) 자택에서 즐거운 송년모임을 가졌으며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는 ‘동해

연구회’에 동창회(아미회)에서 백만 원을 후원하였다.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이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과총동창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학과

회장 이혜옥(74)

정기간사모임에서 4월 답사논의

구름 13일 삼청동 청에서 송년회를 겸한 간사회가 있었다. 20명이 참석한 이 날 선배들이 준비한 달력, 화장품, 와인 등의 후원품으로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월 28일 석란에서 가진 간사 모임은 17명이 참석하여 사학과 동창회의 역사를 회고하고 4월 답사를 논의했다.

언론홍보영상학부

회장 박화숙(74)

신년 오찬모임 및 임원회의

1월 8일 해마다 전·현 임원진과 함께 신년 오찬 모임을 가져온 윤희중 명예교수가 일산 베이징 코야로 임원들을 초대, 식사를 하며 덕담을 나누었다. 윤교수는 올해도 편백나무볼을 후원하였다.

2월 14일 새해를 맞아 첫 임원회의를 강남 스타디움 위즈에서 가졌으며 22일에는 2차 임원회의를 갖고 5월 9일 동창총회를 열기로 하고, 이에 앞서 발간해야 할 동창회보 편집회의를 가졌다.





영어영문학과 10년 하례회

26일 2013년 기대표 모임을 마켓오 도곡점에서 가지고 참석한 기대표들에게 동창회 활동 보고와 동창총회 일정을 알리며 동기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했다.

대식에서 고 김길홍 전 공간디자인과 교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최경실, 임경란 동창 등이 참석하였으며 전 장식미술과 배만실 교수의 출판 기념회에는 박혜성, 최경실, 최정아 동창 등이 참석하여 자리 를 빛냈다.

영어영문학과

회장 김원정(75)

신년하례식 및 임원회의 열어

2월 27일 한일관에서 임원진이 원로 교수 및 고문들을 모시고 덕담과 오찬으로 신년하례 겸 임원회의를 하였다. 올해는 영학회의 밤(5월 30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하모니룸)이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장식미술과

회장 김은영(85)

고 김길홍 교수님 KOSID 시상식

작년 12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대작가 추

특수교육학과

회장 박애영(75)

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

1월 17일 ECC 이삼봉홀에서 총회를 가졌다. 이 날 ART Coaching center 대표인 이경희 동창(79)이 '코칭이란 무언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고 자폐 청년들의 작품을 상품화한 오토스타 상품들을 전시, 판매하였다.

한편 차기 동창회장으로 한국여류바둑협회장인 박애영 동창(75)이 선출되었다.

남가주지회

김정순 (간호 75)

장상전총장남가주지회방문

구 lập 16일 2012 총회 및 연말 파티를 L.A. Sheraton Down Town Hotel, California Ball Room에서 개최했다. 장계원 부회장의 사회로 이수훈 (화학 61) 목사의 기도와 김정순 회장의 환영 인사, 재정보고후 박화자(간호 66)이사장의 인사말과 더불어 김정순 회장의 연임을 발표했다. 안건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장학위원회가 매년 시행되고 있는 장학금을 동창자녀 3명에게 수여한 후 박 이사장이 총동창회 2012년 동창회보 경연대회 수상 상금을 김영강(국문 66) 편집장에게 전달했다. 상금은 그 자리에서 동창회에 기증되었으며 남가주동창 합창단의 합창과 교가제창을 마지막으로 총회를 마쳤다. 총회 후 송년파티는 한나리(체육 92) 동창의 사회로 진행되

었으며 성기순(섬예 69) 동창 부부의 볼륨댄스, 건미회의 강남스타일 말춤이 참석한 150여 명의 동창들과 이화 사위들은 한마음으로 즐겁게 하였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북미주동창회 장명주(의학 77) 회장과 한영숙(영문 60)이사장, 임성숙 (물리 81) 총무가 참석하였다.

한편 지난 2월 6일 장상전총장의 남가주 방문 시 박화자 이사장, 김정순 회장 등 임원들이 자리 를 같이 하여 동창회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듣기도 하였으며 장전총장은 선교부 모임에도 참석하였다.

뉴욕지회

회장 박문순(사학 66)

신년하례식 및 녹미회 전시

2012년 11월 30일 연례만찬을 성황리에 마친 임원과 준비위원들이 뉴욕 플러싱 소재 식당에 모여 쫑파티를 했다. 이 말 박문순 회장은 각자의 역할





을 잘 맡아봉사한 동창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구립 13일 미대 동창들의 모임 녹미회 전시회가 Coohaus Gallery에서 열렸다. 18명의 회원이 참여한 전시회에서는 올해도 회화, 조각, 사진, 도자, 설치작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한편 2월 2일 계사년 신년 하례식이 이사 및 임원을 중심으로 주성남동창자택에서 있었다. 장혜원 고문의 격려사와 박문순 회장의 인사 후 김선영, 최은실 동창의 감미로운 음악과 82학번 동창들의 포크송으로 새해의 꿈을 다지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대뉴욕지구동창회 정기총회가 3월 12일 맨해튼에서 열릴 예정이다.

몬트리올지회

회장 이채화(무용 76)

새해에도 서로 아끼며 모교 발전을 기원
구립 1일 백희준 동창자택에서 25여 명의 동창들

이 부부동반으로 연말파티를 열고 모교 근황 및 동창 소식을 전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임원들이 식사를 대접하여 분위기가 더욱 훈훈하였으며 특별히 박정자(화학 62) 동창의 졸업 50주년을 맞아 선물 증정식과 함께 다같이 축하하며 기쁜 마음을 나누었다. 이채화 회장은 몬트리올을 떠난 동창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2013년에도 변함없이 동창 간에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또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든든한 동창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멜버른 지회

회장 안수산(영문 84)

새 임원진 선출 및 신년모임

2월 23일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오른 멜버른의 화창한 여름 날씨를 만끽하며 동창 및 가족



20여 명이 모여 Ruffey Lake Park에서 BBQ파티를 가졌다. 한편 2013년 새 임원진은 회장 안수산(영문 84), 부회장 박성혜(기독교 95), 총무 박혜진(독문 97), 홍보 정은재(실내디자인 01) 동창으로 다양한 활동과 기획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동창회를 만들 예정이다.

보스턴지회

회장 김희선(법학 77)

2013년 첫 모임에서 모두 함께 노래 배워

2월 16일 서인숙(경영 73) 동창주택에서 새해 첫 모임을 가졌다. 폭설 등 악천후로 많은 동창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최신자(성악 86) 동창의 공개 개인 렛슨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즐거웠다. 최 동창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배운 참석 동창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가르치는 최 동창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다음 모임에는 더 많은 동창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

시드니 지회

회장 황혜자(교공 76)

새 임원진과 첫 신년모임

1981년 설립 하여 년 4회 모임을 가지고 있는 지회가 제 112회 모임으로 2월 16일 2013년 첫 모임을 가졌다. 황혜자 신임회장 자택에서 24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겸하여 2월 말 귀국하는 최선혜(서양 79) 동창의 송별회, 멜버른에서 시드니로 이사한 박은진(정외 91) 동창의 환영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지난 2년간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성실히 임기를 수행한 이정실(제약 75) 회장과 신은섭(법학 84) 총무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했다. 오찬 후 신임 임원진(회장 황혜자, 총무 임미경/영어영문 88, 회계 신은섭/법학 84) 인사와



2013년 활동 계획 발표가 있었고 동창들의 적극 참여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이 날 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해 알뜰시장(아나바다장터)을 열기도 하였다.

시애틀지회

회장 김채순(교육 71)

정기모임에서 지역사회
교육 장학금 전달

1월17일 2013년 정기모임을 갖고 신임 회장으로 김채순동창을 선임하고 박미경(국문 71),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모교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 사업에도 봉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워싱턴대 대학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Staphanie Hana 양에게 로칼 장학금 1천 달러를 전달하였다.

시카고지회

회장 송복진(영문 73)

총동창회 2013 수첩 100개 전달

총동창회 발간 2013년 수첩 100개를 저희 동창들에게 전달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일 년 동안 송복진 회장이 북미주 동창회 회장직을 겸임하게 되어 북미주 동창들에게 일년 계획을 알리는 인사 편지를 보냈다. 또한 2월 2일 김정희 동창 자택에



서북미주동창회의 시카고 임원 15명이 모여 북미 주지회연합회 재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2월 19일부터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한인 문화회관과 공동으로 SmartPhone, Galaxy Tab, iPhone, iPad에 대한 클래스를 주관하는데 매회 1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다.

싱가포르지회

회장 현수정(생미 84)

신년맞이 모임에서 윷놀이 즐겨

한 해의 끝자락을 아름답게 장식한 이화 송년의 밤이 구 lập 6일 조혜숙 동창(영문 89)의 자택에서 열렸다. 이번 연말 모임은 동창들이 주어진 테마(레드, 실버, 골드)에 맞춰 다채로운 의상들을 선보여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이화 여성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보다 즐거운 행사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동

창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장만한 다양한 음식과 더불어 작은 여홍으로 베스트 드레서 패션 콘테스트와 단체 게임, 개근상 수상 등이 있었고 안숙현(체육 89)과 현수정(생미 88)의 가야금 연주, 박지은(특교 95)의 반주가 곁들여진 이윤경(성악 87)의 소프라노 열창이 있었다.

그동안 봉사한 박진경(교공 87) 총무가 신임 김지원(불문 90) 총무를 소개하였으며 박 동창은 2013 싱가포르 한인회 문화예술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박정희(불어교육 76)은 싱가포르 한인회 수석 총부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2월 7일 신년맞이 동창 모임이 함숙자(초교 81) 동창 자택에서 열려 고향의 정을 듬뿍 담은 한식과 건배용으로 장만한 막걸리, 다 함께 즐기는 윷놀이가 인상적이었으며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틀란타 지회

회장 김정희(약대 79)

제17대 신임 임원진 출범

이화 송년 파티 '배꽃들의 향연'으로 2012년을 마무리하고 지난 1월 13일 조성숙(가정 64) 전 회장의 보고와 감사인사로 신년모임을 가졌다.

전임 회장과 임원진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고 신임 회장 김정희(약학 79), 부회장 황영자(약학 78), 총무 김경원(가정관리 81), 회계 최정원(식영 85), 서기 송미애(성악 85) 동창 등 17대 아틀란타 동창회 새 임원진이 봉사하게 되었다.

매월 2째주 일요일 모임과 동창계와 회비는 그대

로 하고 회칙개정과 후원 이사회 건은 검토하기로 하였다. 2월 14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유복렬(불어교육 85) 동문이 부총영사로 부임하시게 되었다. 부총영사 유동렬동창은 프랑스로 유학해 불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7년 국제관계전문가 공채 3기 특채로서 외교부에 입부한 비고시출신으로 2011년 주프랑스대사관 정무참사관 시절에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의 한국 반환을 성사시킨 숨은 주역이기도 하다. 이에 2월 27일 애틀란타 동창회 김정희 회장과 김경원 총무가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유동렬 부총영사에게 축화 화환을 전하고 환영인사를 나누었다.



워싱턴DC 지회

회장 오혜경(영문 72)

18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북미주지회 연합회총회

구립 1일 우래옥에서 60여 명의 동창 및 이화사
위가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총회 및 연말파티를
가졌다. 이날 신임 오혜경(영문 72) 회장 인준이 있
었으며, 2012년 활동 및 재무 보고가 있었다. 신임
오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장직을 맡겨준 동창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18년 만에 북미주지회 총연합
회를 워싱턴에서 다시 개최하게 된 기쁨과 막중한
임무를 말하며 여러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
곡히 부탁하였다.

이 날 'River of Faith' 저자인 신장현(교육 57)
동창께 표창장을 수여하고 지회 발전을 위해 재정
적으로 크게 후원한 김지완(도서 89) 동창께 감사
하며 선배인 김정자(가정 62) 동창이 무릎 담요를

증정하였다. 또한 김복희(성악 49) 동창의 열창(반
주자 백경진/피아노 50, 이정희/종음 89)과 퀴즈,
오락 및 경품 뽑기 등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참석
동창들은 복된 신년을 기원하였다.

청주지회

회장 윤미숙(물리 83)

송년회에서 장학금 수여

구립 14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송년회를 겸한 장
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20여명이 참석한 이 날
2013년부터 2년간 청주지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
장을 선출하였으며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성실
하게 학교와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 학생 3명
에게 각각 3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파리지회

회장 송미영(불문 76)

설맞이 모임에서 신구 임원 교체



지난 2월 23일 이혜진 동창(생미 93)이 운영하는 '마루'에서 고문을 비롯하여 신구 임원들이 설맞이 모임을 하였다. 모임을 가지지 못했던 그동안 궁금했던 동창들의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을 주고 받는 등 따뜻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홍콩 지회

회장 정도경(사복 81)

한국국제학교 오희석 교장 환송회 가져

지난 1월 KIS(한국국제학교) 오희석(영문 80) 교장의 환송파티를 아리랑식당에서 가졌다. 만 3년 동안 KIS 교장으로서 학교 발전에 무궁한 노력과 헌신을 기울여온 자랑스런 이화인 오 동창은 실제로 한인 동포사회 뿐 아니라 홍콩지역사회에서 모교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이화 선후배들 사이에 많은 존경을 받은 오 동창은 이날 환송모임에서 "이화 동창들이 학교 발전

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어 무사히 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였다.

휴스턴지회

회장 김명지(의학 82)

15년째 해오는 '설맞이 경로식사대접'

민속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5일 노인회관을 방문, 노인들에게 정성스럽게 마련한 떡국과 음식을 대접하며 경로사상을 실천하였다. 15년째 계속해오고 있는 '설맞이 경로식사 대접'은 휴斯顿 거주 노부모를 위해 직접 우리가 만든 갖가지 반찬과 과일, 떡을 대접해 왔는데 특히 올해는 휴斯顿의 첫 여성 합창단이 '신아리랑'과 '별'을 공연하였다. 'Innisfree' 합창단은 지휘 문희채(영문 72), 단장 임예자(사학 65) 등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여 2012년 6월에 창단한 합창단으로 노래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심신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다.



모교소식

하버드대 최초의 여성총장파우스트 총장에 명예 이화인수여

3월 22일 모교를 방문한 하버드대 최초의 여성 총장인 드류 길핀 파우스트(Drew Gilpin Faust) 총장에게 모교에서는 '명예 이화인'을 수여하고, 기념특강 '여성 교육-세상을 변화시키다(Educate Women; Change the World)'를 개최했다.

'명예 이화인'은 여성의 인권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며 대내외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로 모교 출신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으며 파우스트 총장이 사학자로, 교수로 또 하버드대 역사상 첫 여성 총장으로 활동하면서 전쟁과 노예 제도에 처한 미국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남다른 공헌을 한 점을 인정해 '명예 이화인'으로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선욱 총장, 장상전 총장, 이배용 전 총장과 이희호 여사(전 대통령 영부인), 조종남 총동창회장, 이인호 교수(전 주러시아 대사), 성김 주한미대사 부부,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영숙 전 환경부장관, 손지애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재학생과 교수진 등 600여명이 강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파우스트 총장은 "세계 최대의 여자대학인 이화여대를 방문하고 또 명예 이화인을 수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본교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여성 1호를 배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여성 교육이 가장 성공적인 나라"라는 말로 특별강연을 시작했다. 또한 파우스트 총장은 "여성교육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여성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갈망하며,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파우스트 총장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일정 중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이화여대를 방문했다.

쿠엔틴 브라이스 호주연방총독과 한국 여성 리더 만남 개최

모교는 2월 26일 '이화여대-주한호주대사관 초청 한국여성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쿠엔



퀸 브라이스 호주연방총독은 글로벌 여성 교육을 선도하는 본교에서 우리나라 대표 여성리더들과 만나 '경제와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를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김선옥 총장을 비롯한 본교 교수진과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 새누리당 신경림·이자스민 국회의원, 나경원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장, 손지애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 등 여성 리더가 참석해 양국 여성의 경제 활동 현황과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퀸 브라이스 호주연방총독은 취임 후 여성, 가족 및 청년 계층을 위해 일하고, 지방·노인·원주민·이민사회와 장애 부문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며, 인권·여성 권리·어린이 권리·가족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선옥 총장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총독의 깊은 헌신과 기여는 'non nobis solum'을 추구하는 이화의 정신과도 맥을 같이 한다"며 "127년 전, 소외 받는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되어, 이제는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이화와의 만남이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퀸 브라이스 연방총독은 "많은 여성리더들을 배출한 이화여대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여성리더들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3학년도 입학식 개최로 3,730명의 신입생 맞이해

모교는 2월 22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2013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3,730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김선옥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이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127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평등과 해방을 위해 노력해온 거대한 역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화 동창 네트워크를 만난다는 것이며, '이화'라는 빛나는 이름과 그 가치를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교 남성교수중창단 '백설공주와 오빠들'의

축가 및 이화브라스앙상블의 축주가 펼쳐졌다. 특히 '백설공주와 오빠들'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개사한 '이대 스타일' 공연을 펼쳐 학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신입생 선서는 글로벌 지도자 장학생인 백지영(스크랜튼대학)씨와 EGPP장학생인 과테말라 출신 아나파울라 산체스 버스타만떼 바이롱(Ana Paula Sanchez Bustamante Bailon, 공과대학)씨가 맡았다.

입학식 후에는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행사 'Welcome to Ewha'가 이어졌다. 'Welcome to Ewha'는 KBS 박은영アナ운서(무용 05)가 사회로 진행됐으며,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으로 활약한 나승연 동창(불문 95)이 특별게스트로 등장해 "이화에 입학한 것은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축하하고, 사회에 진출한 선배로서 새내기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전했다.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2월 25일 대강당에서 열린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3,513명(학사 2,248명, 석사 1,156명, 박사 109명 등)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김선옥 총장은 이화공동체를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그동안 이화에서 훈련받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화의 정신이 여러분의 튼튼

한 기초체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격려하고 "인생에 계속되는 시험과 평가를 지혜롭고 성실하게 치러내고, 당장의 성공이나 실패에 좌우되어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뇌병변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김한송(산업디자인전공, 07학번)씨가 학사모를 썼으며, 10명의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이화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 장학생을 포함, 루마니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고 등 총 8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 에듀 '이화여자대학교 브랜드사이트(youtube.com/ewhauniv)'를 통해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졸업생 및 이화 가족들에게 생중계됐다.



동창소식

졸업 연도 순 개재

문희 (약학 59)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인 문 동창이 구 lập 18일부터 1월 17일까지 YTN 마약퇴치공익광고에 출연하였다. 이번 공익광고는 문희 이사장이 기획하였으며 ‘마약류에 중독된 뇌가 치매환자의 뇌처럼 손상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광자(불문 66)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 회장인 김 동창이 작년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에 이명박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동창은 재외동포신문이 선정한 ‘2011 올해의 인물’ 수상자이며 작년 2월 5일 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송창주 (가정 62)

네덜란드 헤이그시에서 부군 이기항씨와 함께 이준 열사 기념관과 이준 열사 아카데미를 운영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3월 5일 KBS가 주는 해외동포상을 수상하였다.

정소영 (영문 62)

아틀란타 한인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상담, 의료 봉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밝은 한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 동창이 ‘아틀란타 한인회 패밀리센터’ 소장에 취임하였다.

최구자 (서양 65)

3월 20일~ 27일까지 화가인 최 동창이 ‘자연과 공존 (Nature – Co-existence)’ 을 주제로 인사동 썬 갤러리 (Sun Gallery)에서 제10회 개인전을 열었다.

김순희 (법학 66)

아틀란타 CBS(기독교방송국) 부국장인 김 동창은 방

송 선교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정미령 (교육 66)

한국인으로 최초로 옥스포드 대학 Academic Fellowship이 된 정 동창이 2012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였다.

김미경 (식영 67)

1월 차의과학대학교 석좌교수에 임용된 김 동창은 모교에서 37년 6개월간 재직한 후 2010년 8월 말 퇴직하였으며 이후 모교 명예교수로 임용됨과 동시에 (주)바이오푸드CRO를 설립, 대표이사로서 바이오식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순희 (체육 69)

3월 6일~12일까지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두번째 부부 전시회를 열었다. 2006년 첫 번째 부부전을 가졌던 정 동창은 한국미술협회 회원이다.

조용옥 (국문 73)

캐나다 에드먼튼지회의 조용옥 동창이 첫번째 시집 ‘푸르게 걸어가는 길’을 서울의 시선사에서 출판하였다.

유선희(기악 68)

이대 음대 학장인 채 동창이 2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정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유 동창은 세종문화회관 초대 상임 오르가ニ스트로 재직한 바 있다.

김순섭 (섬예 73)

수원과학대 산업디자인과 교수인 김 동창이 2012년 11월 21일~26일까지 인사아트센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작품은 서정적인 이미지를 차가운 큐브로 형상화하

였으며 절제된 수학적 미의 쾌감을 보여주었다.

이미연 (동양 76)

2월 27일~3월 12일까지 Able Fine Art NY으로 서울에서 개인전을, 3월 6일~26일까지 뉴욕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장영란 (섬예 77)

한국미협 국제 교류위원장 및 수원대 교수인 장동창이 중국 남퉁시에서 개최하는 제 7회 'From Lausanne To Beijing International Fiber Art Biennale Exhibition'로 잔느 국제 섬유 비엔날레전에서 국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 및 초대전을 하였다.

한미라 (유교 78)

경남대 유아교육과 교수인 한동창이 경남대학교 부총장으로 취임하였다. 한동창은 2008년에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김정희 (약학 79)

아틀란타 지역 여성 리더십 발전과 전문직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데 봉사하고 있는 김동창이 여성가족부의 국제프로그램인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KOWIN)의 미주 아틀란타 지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박혜정 (관현악 82)

구립 8일 캐나다 한국청소년 교향악단 단장이자 상임지휘자인 박동창이 가야금과 협연하여 노숙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교를 하는 '희망의 집'을 위한 Fundraising 크리스마스연주회를 열었다.

유복렬 (불어교육 85)

2월 14일 부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아틀란타 총영사

관부 총영사로 부임한 유동창은 아틀란타 최초 여자 부총영사로 프랑스 대사관 재임 시 외규장각 반환 협상의 주역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남연숙 (도예 86)

작년 11월 30일~12월 7일까지 Guam 필리핀 미술가 회원 주최 전시회인 "GFA Images2"를 Nissan Infiniti Art Gallery Guam에서 열고 구립 7일 제11회 Guam 필리핀 영사관 관저에서 개최하는 미술 전시회에도 출품하였다.

노승희(기독 86)

극단 '희즈' 대표인 노동창이 고 강성희(2006 올빗 희곡상 수상)동창의 희곡을 각색, 연출한 '꽃 속에 살고 죽고'로 제1회 여성극작가전에 참여하여 2월 13일~3월 3일까지 대학로 일과 핵 소극장에서 공연했다.

박영숙 (경영 86)

지난 3월 1일 한식세계화에 발맞춰 Korean Tapas를 주 메뉴로 하는 레스토랑 '반주 (Barn Joo)'를 맨해튼에 오픈했다. 주소/ 893 Broadway N.Y., N.Y. 10003(Bet.19St. & 20St.), 웹사이트/ www.barnjoo.com

채림 (불문 86)

쥬얼리 브랜드 RIMM GIOIELLI 대표인 채동창이 세계패션기구(WF4D)와 한국포멀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 패션페어 제 1회 2013 CIFF(Charity International Fashion Fair 2013)에 쥬얼리 디자이너 부문 대표로 참가했다.

송미숙 (사회 88)

뉴욕대한체육회산하 댄스스포츠협회 회장인 송동창

동 창 소 식

이 FGS(뉴저지 한인동포회관)로부터 감사패를 받은데 이어 2월 7일 협회로부터 2013년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오주연 (조소 90), **홍현애** (조소 86),
전선영 (조소 90)

미주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오주연, 홍현애, 정선영 동창이 1월 22일~2월 28일까지 미국, Lynn J 갤러리에서 이화조각회 미국 특별전 'Volare—over the land' 을 열었다.

유성희 (신방 91)

한국 YWCA연합회의 사무총장인 유 동창이 1월 초, 여성신문이 선정하는 '2013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 7인에 선정되었다. 유 동창은 생명사랑공동체운동, 공동체육아운동, 도우미사업의 공공서비스화 등을 통해 경제정의실현에 앞장서왔다.

민현주(사회 92)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민 동창이 2월 4일 당 대변인에 추가로 임명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김은혜 (신방 93)

MBC기자와 앵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동창이 작년 12월 KT의 첫 여성 홍보총괄 임원으로 발탁돼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실장(전무)을 맡았다.

김서경 (조소 94)

2월 22일~4월 14일까지 김종영 미술관에서 제11회 김종영 조각상 수상 기념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작품은 자신의 존재에 관한 성찰의 내용으로 작가의 인고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경아(피아노 97)

이대 강사인 이동창이 2월 6일 금호아트홀에서 '이경아 피아노 돋주회'를 열었다.

이지향, 오수연 (조소 98)

이지향 동창 개인전이 구립 1일부터 31일까지 스페이스컴에서 열렸으며 오수연 동창 개인전은 구립 9일부터 2월 7일까지 우모하 갤러리에서 열렸다.

김사란(관현 00)

충남 교향악단 수석단원인 김 동창이 2월 3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바이올린 돋주회'를 열었다.

송미화 (컴퓨터 02)

서울대 석사와 미국 죠지타운대 연구소에서 유급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박사학위를 받은 송 동창이 3월 1일부로 세명대 조교수에 임용되었다.

표민성 (피아노 82)

원광대, 선화예술학교 등 강사인 표 동창이 2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표민선 피아노 돋주회'를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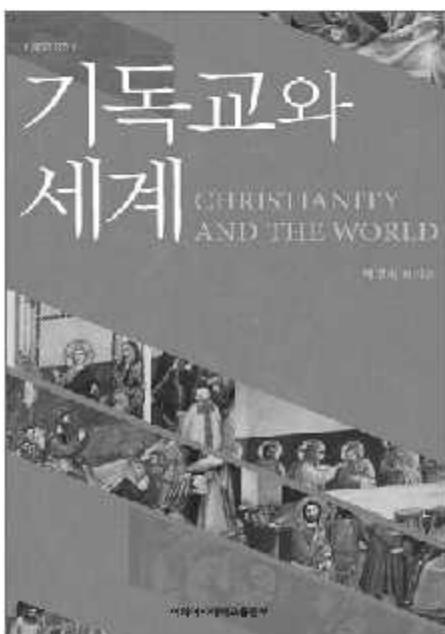
양여경 (특교 07)

교육대학원에서 진행한 석사학위 논문연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양동창이 작년 11월 15일 '제1회 학생봉사활동 이야기 공모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정유리 (관현악 07)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단원을 거쳐 경기필 오케스트라 상임단원인 정동창이 2월 17일 금호아트홀에서 '정유리 귀국 바이올린 돋주회'를 열었다.

동창이 꺼낸 새책



최숙경(사생 57)

최숙경 지음/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프라이 이화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1886년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이화여대의 역사와 전통을 돌아보고 이화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된 '이화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의 세 번째 책으로 이화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고 한국 근대 여성사에 굵직한 업적을 남긴 룰루 E. 프라이의 일대기.

이소현(심리 66)

이소현 사역보고서/크리스챤서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1984년 극동방송에서 상다사역으로 봉사하며 전파선교사가 되었고 1992년부터 소련 선교회 서기 및 이사로 봉사하며 20여 년동안 준비하는 선교사로 훈련받고 2003년 러시아에 파송되어 사역한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의 사역 보고서.

이경숙(기독 71)

이경숙 기독교 입문서/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 역사, 성서, 교리 및 윤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기독교 입문서. 기독교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기독교 전반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기독교를 처음 접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독자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

징이다.

우혜전(신방 74)

우혜전 지음/아이아ấp

20년간 배운 영어 런던에서 길을 잃다

수십년 동안 영어를 배워도 정작 영어권 현지에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괴로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책. 한국어로 쓴 책이지만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ebook 형태로 읽을 수 있다.

한기정(특교 75)

한기정 지음/소소리

어찌 지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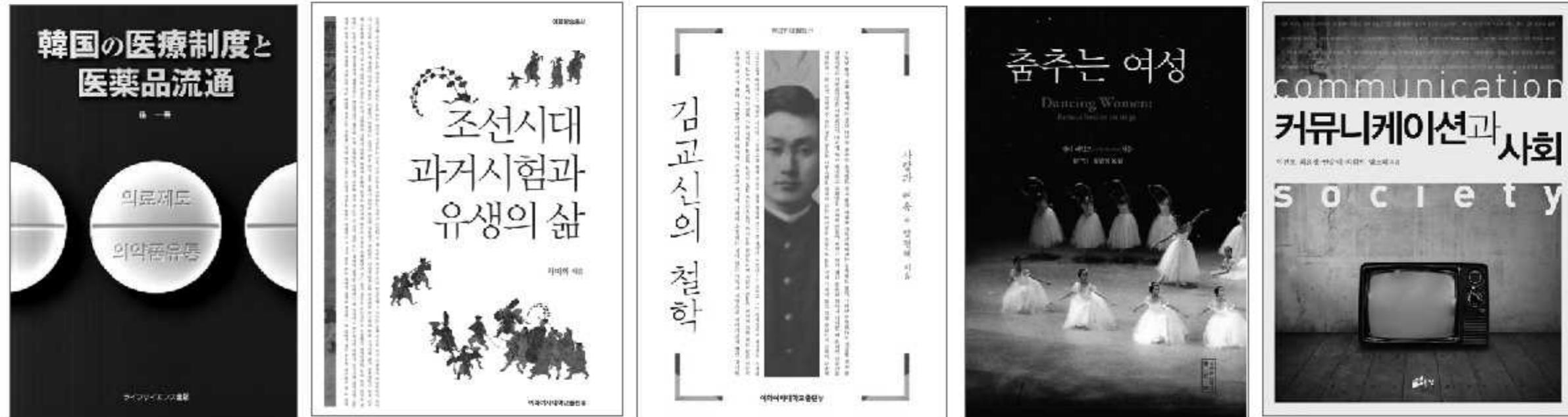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이야기 속에는 저자를 비롯하여 그 주변 인물들의 삶이 녹아내리고 있다. 사람들의 심리와 행태, 사회 현상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보였으며, 소재마다 보편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박경미(기독 81)

박경미 신학연구서/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 요한공동체의 문학과 신학

신약성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신학과 문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연구



하려는 신학생, 교회 목회자들, 일반인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손일선(경영 82)

장미영 손일선공저/ 어문학사

한국어일본어 병원용어

의료관광에 맞추어 한국에서 출간한 이 책은 병이 났을 때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용어, 문장 등 표현과 일본과 한국에서 문화적인 차이나 용어 차이로 인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최대한 정리한 것이다.

차미희(사생 83)

차미희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특히 문과의 위상과 운영 방식, 정치적 기능 등의 고찰을 통해 당시의 정치 운영 양상 및 정국 동향 등을 분석한 연구서로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고찰을 통해 당시의 정치 운영 양상 및 정국 동향 등을 다양한 사료들을 참고하여 분석한 연구서이다. 조선시대 지식인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 데 이 책의 의의가 있다.

양현혜(기독 83)

양현혜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교신의 철학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기독교 사상가, 교육자, 사회평론가로서 활동

했던 김교신의 철학과 삶을 다룬 연구서. 김교신의 주체적이고 실천적 인기독교 사상과 삶이 잘드러나 있어 한국 기독교계에서 자기반성과 쇄신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정(무용 90) 김수인(무용 01)

샐리 베인즈 지음, 김현정 김수인 옮김/ 성대출판부

춤추는 여성(Dancing Women)

낭만 발레(라 살피드, 지젤, 코펠리아), 러시아 제국 발레(잠자는 숲 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초기 현대무용(불의 춤, 백 합, 브람스의 왈츠, 어머니, 혁명적 에튀드, 라다), 초기 현대 발레(불 새, 봄의 제전, 결혼), 현대무용(마녀의 춤, 나의 뜨거운 열정으로, 통 과의례, 밤의 여행), 현대 발레(라일락 정원, 웨딩부케, 로데오, 아곤), 포스트모던 댄스 작품들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책이다.

최윤정(영문 95) 안순태(법학 90) 차희원(신방 84) 임소혜(신방 86)

최윤정 안순태 차희원 임소혜 공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의사소통의 역사가 보여준 근본을 생각하며, 원론적인 차원에서 숙고할 여지들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책.

신문 방송을 비롯해, 광고와 PR, 뉴미디어 전반을 짚어보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커뮤니케이션과 현대적 소통의 의미를 점검하고 이분야에 관심을 지닌 독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학문에 대한 이해를 돋구도록 구성되었다.

신입동창 명단

2013년 2월25일 학위수여식에서 학위를 받으신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내신 입회비는 총동창회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입회비를 납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총동창회에 입회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 전공

민경진 서단비 강교리 고효진 곽지애
김빛나 김선경 김수희 김엄지 김에스더
김예은 김유리 김이진 김지영 김지현
김효은 김효주 나가영 박경민 박예원
박은경 배지수 범윤정 손빛나라 심유경
안세연 유윤경 유지현 이다솔 이서현
이세영 이수진 이우정 이은숙 이지혜
이진영 이향은 이해운 임유림 정현아
조은지 최리 최안나 최형은 표정의
한정선 이지영 최연화

Chan Wing Shan Dwi

Hestiningsih Nguyen Kim Ngan
김연지 이사랑 이성령

중어중문학 전공

김동은 김민영 김보람 김사랑 김수경
김윤지 김태연 김한주 남궁유진 남빛
나라도정연 박지예 박현덕 박혜인
백민영 서예훈 송지나 신연선 신현경
양송이 양혜령 오지선 윤설아 윤헤영
이가영 이경미 이민형 이정신 이정윤
임원경 조란희 조유정 조혜수 주혜인
최리 최소영 최유선 추은혜 한소영
강지은 정동은 최혜정 Jiang Lin

영어영문학 전공

강소선 강신영 국희영 권지윤 김다은
김도희 김민경 김민아 김소명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연지
김자람 김정원 김지영 김지혜 김희진
남궁윤 박소영 박시은 박은영 박혜민
배성윤 배수윤 배한진 서윤아 신민정
신보선 신선아 신세미 신효수 안학영
양은영 엄혜미 오미란 오원경 오지혜
오진아 오혜진 유선명 유태영 유혜정

유희정 윤지윤 윤희영 이강윤 이경민
이규미 이신영 이예슬 이은재 이재은
이정은 이정호 이지연 임보라 임수진
장다정 전수민 정선정 정승은 조민정
조상희 조원미 조정원 주다혜 지석란
최빛나라 최서연 최송하 최은정 최혜정
한수정 현소영 홍민희 홍수진 홍지영
황다영 황수정 황지영 강민아 김설희
김지연 명효진 박수경 박지예 박혜연
배유진 윤현지 이민형 정보라 정은하
진예원 홍연경

불어불문학 전공

강다영 곽소현 구해성 김민소 김소리
김소연 김해리 남인하 박상미 배경인
서혜지 성지윤 송현주 양민해 유임경
윤선영 윤현지 이보라매 이승예 이인정
이지영 이하늬 이해림 전송이 정승연
정은혜 차주영 채진주 함유림 허윤정
Giovanna Clara Fabiano 류경민
이옥선 최다은 최운정

독어독문학 전공

공예임 김미령 김보형 김아람 김정은
류영주 박아현 박현정 배유진 성수지
손지은 신선혜 신지연 유은빈 이경원
이보람 이송현 이수빈 이지윤 이지희
진예원 천지혜 최소희

사학전공

강정효 김다인 김서연 김서영 김소영
김지인 김현아 김혜지 김효정 나정선
박다해 박새롬 박소윤 박수정 안병효
유애리 이수현 이옥선 장영인 정다혜
정은숙 차한비 최다원 최민지 최예니
추설희 한지연 황열아 황현지 김지영
서재원

철학전공

김정연 박수현 박희수 송준화 송혜수
신신영 심윤형 심현정 유온유 윤휘연
이동은 이신애 이지민 임소담 전해인
지은솔 박예원 이수연 이연수 이재인
조소희

기독교학 전공

김정화 김효은 문혜진 문희진 박은총
안정은 우은성 이성령 이수진 이윤주
정영주 조나랑 조은정 최지혜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전공

강서정 강수지 고은영 김다솔 김다정
김동휘 김명선 김미라 김민주 김세희
김수민 김수연 김애림 김유경 김유라
김정재 김지민 김한나 김희재 박민지
박보배 박수정 배정인 서재원 성지현
송혜원 신은영 신지예 심현수 안민영
오지연 이가람 이나영 이보람 이수연
이수지 이슬 이유정 이정연 이주현
이지혜 이한나 이해수 임소영 전은진
정인선 정혜인 조수민 조수연 주민지
주소은 채재원 최수진 최지원 최혜경
한지영 함소연 홍다솜 홍은지

Burlacu Ruxandra Alis Canh Mai
Huong Kamolchanok
Wattanaprasert

Le Ngoc Phuong Uyen Nguyen
Kieu Trang 김나리 김예슬 김은영
김이슬 김정원 박혜민 어수란 위성희
이송현 이영은 임보라 임효진 전송이
정희순 최수빈 최유선포정의 한신애
함초영 황보경 Cai, Yajing

행정학전공

강보라 김근혜 김민지 김수경 김수진

김수현 김슬기 김정민 김주혜 마민지
마민지 박경난 배윤정 사공효정 서지현
선소원손희은 신선한신현섭 심정은
오경진 이문환 이민영 이사랑 이은미
이인주 이지수 이하나 임수진 장세영
정재선 조수현 최반조 최보미 최혜윤
추의술 한재은 홍덕희 황윤경
LKHAGVADULAM NYAMSUREN
NIANKA 강민영 공윤정 나가영
박서현 박현덕 부영현 성민지 성수지
임소담 주설희

경제학 전공

강민영 강소라 강송미 강지은 구영은
김나래 김누리 김설희 김성경 김소연
김소영 김수림 김수연 김수진 김아영
김영진 김예슬 김예슬 김윤정 김은경
김이슬 김정송 김정인 김정주 김주연
김지혜 김혜린 김혜민 김혜진 나상은
노유림 노윤영 노혜인 류경인 박민하
박서현 박선희 박소연 박슬기 박예리
박지혜 박현주 배승희 부영현 서인효
서혜진 성민지 성수인 손연주 송예송
송지은 신정원 신지영 신혜인 안소연
안유림 어수란 여송화 오미경 오예진
위성희 유지나 윤지현 이다정 이미나
이수남 이수진 이수진 이연수 이영신
이정아 이지영 이지원 임혜지 임효정
장민지 장소영 장현진 전진희 정유리
정혜수 조루시아조서희 조유정 조은샘
조희연 진달래 채성경 최다영 최미나
최미진 최선영 최예원 최윤지 태경남
함지선 Davaakhuu Chantsal Jin
Jing Poonpakdee Poramapa
Zhu Meng Ying

강수지고은영 구해성 권원희 김가현
김경미 김광희 김근하 김근혜 김다예
김민정 김민정 김세연 김소현 김수연
김승희 김에스더 김연수 김옥현 김윤지
김은연 김지수 김지인 김지현 김진주
김현정 김현화 김효라 김효은 나경아
마민지 마민지 민동주 박고은 박수정
박은아 박정미 박지선 박혜민 배유리
백인영 범윤정 서지현 석민진 송민지

송지민 신선한 신연선 안소영 안수진
안정인 오소희 오혜림 오혜지 유미영
유선후 유세미 유지현 유지현 윤숙연
윤이반 윤지인 이경은 이규미 이민지
이보경 이보람 이소영 이연호 이예진
이유정 이은솔 이은주 이정은 이한나
이현주 임수진 임아림 임영신 장민영
장선희 장세영 전해인 전혜진 정소흔
정재선 정지연 정현아 정혜인 조세경
조수민 조수현 최반조 최초애 최하은
최혜윤 주지연 한수연 한은경 한지영
한지혜 허수진 허지선 황지영
Dorjpagam Jagdal

문화정보학전공

김경미 김다현 김우리 김현정 박수진
박수현 박지선 박지혜 백선형 윤지인
정수정 최하은 곽지애

사회학전공

고명지 권소연 김시정 김유진 김은영
김지민 김하은 김혜은 박고은 이현영
정미라 정세진 최윤희 최지나 장유진
한주홍

심리학 전공

강명희 구민영 권서영 김민정 김새울
김서연 김신혜 김인애 김지아 김형연
마한나 민사빈 박지인 반승현 서민지
서재인 성세라 송세진 신초롱 심우현
어윤지 윤이반 윤지영 윤혜정 이동은
이수진 이슬아 이예진 이윤정 이해인
이현진 장신애 정동은 정보경 정수진
정희진 차예슬 최은미 한빠울라 한수연
LIU YUNQIU 강일향 권소연 김미솔
김보희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슬기 김시인 김영미 김영정 김우영
김유진 김은아 김자람 김효주 김효진
마민지 문소라 문이훈 문희진 민주원
박지혜 서혜지 설유진 손연주 신민경
신혜원 심지수 안정은 양정인 유은빈
유지나 이규휘 이다솜 이다희 이수경
이수진 이수진 이윤주 이현진 임선영
임혜진 전미나 정유선 주민지 최리
최윤지 함호선 황유미 황효진

소비자학 전공

강한나 김시연 신혜원 이규민 이정은
이정현 정보라 강혜미 권유빈 김누리
박수현 이가영 이서현 이윤경 최지혜
언론정보학 전공
고선영 김미솔 박상아 석지윤 신지원
심지수 이지선 전효진 정희순 조은별
최수빈 주지연 하세린 하지연 한주홍
함초영 홍연경 황보경 CHANG YU
강하나 김정재 손빛나라 안소연 오원경
이경민

광고 홍보학 전공

강황 김경호 김다예 김민경 김예지
김원재 김지현 김현정 김현지 김효진
김효진 노미지 문희정 박연주 박효림
손보경 유수란 유승희 이나경 이수지
이혜민 장유진 조미경 조승연 조윤경
허진 황예림 고효진 김희진 이재은
조은지

방송 영상학 전공

강민아 강하나 김나리 김아름 김은수
김주경 박지숙 박지은 박지희 오예솔
유승혜 김보형 손보경 이소현 지은솔
Cai, Yajing Jiang Lin ParkRina

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

강진미 강희주 구산 김가현 김민지
김서영 김승희 김주희 김지인 김진주
나경아 박고은 박선미 박선희 백인영
송민지 송지민 신나리 신민경 안소영
엄효숙 유세민 유지현 윤수련 이상희
이세영 이예진 이인영 이현주 장민영
정소흔 조혜미 지혜민 최주연 한성화
황세나 김다정 최새롬

통계학 전공

구은파 김광희 김다정 김동이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소연 김수진 김윤영
김지선 김지수 김현화 노서정 노솔이
박소은 박정미 박준선 박지선 박혜진
배유리 서은진 신지원 안수진 안효림
오슬기 오혜지 유선후 유지현 윤수진
이보경 이소영 이연호 이은솔 이은주

이종희 임영신 장현정 최지영 한은경
홍세지 김민지 김서영 김수연 김시내
물리학 전공

김상미 김수정 김윤영 김지나 김지혜
박줄리 박혜연 손수정 신수지 오유리
이서경 이정화 이현주 전세윤 정예진
최새롬 유세민

화학 · 나노과학전공

고문지 곽윤지 권정민 김경진 김다빈
김이슬 문수연 박예슬 박진혜 범지윤
서명주 손지수 송지혜 오은영 윤지수
이가예 이다영 이명륜 이수진 이슬기
이휘인 장윤희 장혜수 전진영 정다정
정지은 조선정 조유경 조윤빈 주윤아
최세현 최현아 허 담황새암 황유미

화학전공

김다예 김소희 김지영 민슬아 박서현
차정민 최선혜

생명과학전공

강유경 강일향 고다혜 공 윤 곽지연
곽태리 구주연 권혜연 김가영 김나정
김다은 김미정 김민정 김보이 김보희
김서연 김시아 김연지 김예린 김유진
김지영 김지은 김한주 김해미 남정현
동유정 문가영 박귀진 박민혜 박소미
박소은 박연경 박윤선 박혜미 박혜진
배지연 서지원 선지혜 손민지 손원정
송보람 송지연 신수빈 신지홍 신혜원
안은정 양정인 양지수 염재윤 오경진
원소영 유지윤 윤시정 이미경 이미나
이상영 이수희 이아름 이예니 이예슬
이유리 이은경 이지영 이지윤 이희영
임새날 장혜봉 전호경 전효인 정서윤
정이슬 조성경 조성은 조유빈 조윤영
조혜정 주미진 주민아 주소희 최아영
최영아 최우진 최은형 최지수 한민지
허 란 허한나 홍희정 황유나 김수리
이명륜 정예진 황인선

공과대학

컴퓨터 공학전공

구자림 김미경 김예진 김은영 김종희
김준궁 김지연 김형경 도민혜 문수인

박수현 서유리 서혜원 신은정 오석현
옥경림 윤민정 윤민주 윤선정 이수민
이승희 이윤선 이은비 이해나 이혜련
임윤경 정수연 주혜원 진인지 최하연
최호정 황소연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박보경 박서하 백수경 이예나 최금아
전자공학전공

강태경 곽나리 권혜진 김경지 김나래
김나명 김은영 나명진 박은정 심미란
양서희 오나경 우정화 유효라 윤미래
윤민경 윤소희 이고은 이승희 이윤선
이윤정 이은정 이재영 이혜인 임지선
임혜인 전언지 전혜민 정성희 주성원
채송희 최수진 최윤희 최의현 최한별
한다희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김선우 김승희 유희선 이재은 이지혜
전민경 홍수지

건축학전공

김고은 김령아 김민정 김보람 김영도
김용선 김지영 김현정 박신영 박하현
유희재 윤소연 임지혜 장유진 정지희
채한솔 최경인 황선혜

건축학(5년제)전공

문지혜

건축공학전공

강금영 김나은 김명진 민미리 박민주
박민지 박신욱 신청조 이소정 조아람

환경공학전공

권민재 권윤희 권이슬 김선혜 김수덕
김아람 김완희 박소정 서주희 소유진
오해성 유미영 윤희영 이양선 이예진
이윤영 이현지 임선영 임수정 임현정
장선흥 정명일 정슬기 정정연 최연화
최예슬 한단비 허꽃보라

식품공학전공

강희림 고승연 고운해 구이례 권다은
권보경 김새움 김승주 김잔디 김하람
박소정 신주연 윤아름 이경아 이나혜
이혜선 장란이 정희연 지수랑 홍예나

음악대학

건반악기전공

강현경 공현주 권단영 김민지 김유미
김희연 문새롬 문수진 박정화 변경민
송재정 양이슬 오진주 유진실 윤소연
윤여진 이가은 이고운 이소현 이 슬
이예슬 이예진 이윤정 장미경 장민진
장수정 장이레 전미미 정유진 최다영
최윤정 한유빈 함지현 현규경 현윤지
Jin YinJi

관현악전공

고예림 권세미 김가현 김민지 김선영
김종문 김지양 김지은 김진희 문여진
문효빈 박민주 박수정 박온유 서아름
송지원 신지혜 윤소정 윤엘리 이수민
이원하 이정은 이하상 임영희 전다솜
정자현 정하나 주하나 지한을 한경운

관현악과

윤이나

성악전공

강태은 박수연 박희경 신연정 오혜승
이선정 이영인 이윤지 이주현 이혜진
정다운 정주리 조세은 조영은 조윤서
한보람 한 솔황예원 황정희 Li Dan

작곡전공

강석영 김다은 김영경 김현영 김혜원
박하늬 송지윤 안신혜 우지영 유승연
정혜지 최영주 최임수 최재선 황지은

한국음악전공

김설희 김세화 김주현 김지은 박지현
박지희 배소현 백영비 손유리 안다미
양희주 유슬기 유재경 이다윤 이세미
이신정 이유진 이지혜 이향묵 정혜인
홍민아

한국음악과

김지나

무용과

권재희 기유진 김빛나 김선영 김한결
남지연 민빛나래 손보람 손주연 오정민
유성민 이민애 이윤영 이재인 이주리
이지숙 이해니 임지은 장근영 정찬미
최세림 황희진

조형예술대학

동양화전공

장혜리 정하늘 진희란

한국화전공

송희은 장지영

서양화전공

김시랑 류경민 박조이 석영경 전혜인
정양준 정조아 최유원 황정아

회화 · 판화전공

민승경 서은하 손예슬 이혜원

조소전공

강지혜 전미나 정유진 한지수

섬유예술전공

박효윤 이세정 이주리

도자예술전공

강민정 공민지 변윤이 양희주 오혜령
최우경 김혜리 김주연 이소영

시각디자인전공

문해원

산업디자인전공

권윤지

패션디자인전공

신아영 신재경 정세현 조희원 Zhang
Keyuan 김은정 박경미

영상디자인 전공

이윤수 이 람

의류학과

고주현 김진주 박성윤 유재은 조윤경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민경 김상리 김지민 박한울 박혜연
오선민 우라미 유민지 윤승희 이시은
이현진 장수형 전은미 정민지 표재희
홍완기

유아교육과

강민정 경다현 김아경 김유리 김효빈
남하늬 박선영 방선혜 서 늘 안혜림
육민지 육선민 이가원 이유선 이초원
이혜원 조혜진 천혜진 최유진 허가영
황윤하

AYE PHYOE PWINT Xu Linjing

초등교육과

구자영 권누리 권지효 김솔지 김수정
김영선 김원경 김지원 김현지 박세진
박주비 박지현 서 은 엄태원 유다연
이세희 이아름 이유경 이지현 이찬희
이현주 이희연 임가예 임규선 정아름
정윤아 최보미 최수정 최은진 한미진
한혜주 황예슬 김민경 김지영 문경주
박은정 신시내 안영은 안혜림 원희재
이수지 이슬기 이옥규 이정아 임사랑
조진희 표재희 한윤희

교육공학과

강연진 강지혜 김경진 김은정 김혜미
김희준 박상아 박은정 박혜림 우지수
이예진 이옥규 이유진 이은보라 이지
은 장영은 조가영 천솔 최미리 하건희
한윤희

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전공

나태경 박소연 백경랑 서혜연 윤지영
정원화 조성아

중등특수교육전공

배다면 여찬미 유하은 윤새라미 이은지
장미정 장혜림 조자홍 최유라

특수교육과

명효진 박상아 성혜민 신시내 이경원
이선우 이정아 이채령 장세진 장혜명
정유선 정하람 최은정 홍혜림

영어교육과

강나리 강인영 고미나 고은빈 김보민
김수인 김영정 김우영 김은지 김인혜
김재은 민주원 박세린 박윤정 박진아
배여정 서기쁨 안지영 오세정 원희재
유향기 윤예진 이수민 이윤주 이은정
이정은 이지혜 장보화 정유진 정하윤
조수진 조아라 조진희 주소영 최다은
마한나 박주비 서유나 우지수 유민지
이예진 장수형 조가영

사회생활학과

역사교육전공

강민채 강슬기 구아름 구은지 권오연
김미리 김민정 김성은 김슬기 김예솔

김예지 김하영 민지은 박성은 박지영
박현진 신동은 신희영 오정미 윤연주
이 삭 이소정 이수연 이영주 이윤실
임지윤 조다정 조예슬 조지수 조한별
최승애 최효정 현지아 김경진 조은아
지리교육전공

고민정 김민성 김지영 김혜진 송화령
이승현 이재영 이화용 임사랑 정연희
한나라 박혜림

일반사회교육전공

고재원 권민정 김보경 김수연 김수진
김연수 김재은 김지혜 박상희 박지혜
서유나 안영은 이다영 이상경 이소현
이수지 이정윤 이효진 조은아 조은영
지용민 함호선 이경원

국어교육과

권유빈 김근영 김새봄 김시인 김연미
김예원 김은실 안현지 유순옥 이윤희
이은진 이지영 이현정 임선영 장혜린
최아리 편지윤 홍진미 황성혜 Tao Ye
권오연 김혜미 박상아 오선민 천 솔
홍완기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전공

강은지 고나리 고연주 권수희 김경은
김시연 김은혜 박동화 박세희 사공달
신다인 오은주 유상미 유슬기 이경희
이유강 조화영 진소연 최지연 한조희
허송이 홍세아

화학교육전공

김가은 김다애 김유리 김정아 김정현
김지은 김진주 류진주 배수연 신유연
양예진 오승희 오혜정 윤보라 이슬기
이윤미 전유선 정기정 조윤주 최문진
하재은

생물교육전공

구수연 김단아 김모을 김미라 김윤지
김은지 박예승 서연수 손세영 양인정
오지혜 오진영 이민주 이수진 이슬기
이현아 이혜인 장다영 전소영 전은정
정유진 정유진 정지나 조성은 현승연
현혜성 김지혜 허은정 홍해인

지구과학교육전공

강희수 강희정 김보경 김보라 김수현
김영희 김예진 김정화 김혜원 서민경
성민진 양정현 윤화영 이민경 이유라
이정하 정종회 조아라 조우리 최수연
허은정 홍해인

수학교육과

권소희 김숙영 김유경 문경주 박미광
박선미 박신영 방정은 백혜현 양미령
양수진 오혜림 유가연 유아름 이수정
이정연 이지영 이진아 이해리 임효진
장선희 장현정 정경미 정한나 주민진
주윤경 한해인 홍세린 홍영현 김시연
윤화영 최지연

보건교육과

김지현 민동주

공통과학전공

강희수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강다혜 강민영 강지원 고은경 권원희
권하연 김근하 김나영 김민경 김민지
김서린 김수현 김영미 김예린 김옥현
김은수 김은아 김은연 김은예 김지연
김지향 김지효 김진희 김혜수 김효라
김희진 박미희 박미희 박선영 박은아
박은주 박혜민 배지영 백 진 서수연
석민진 설유진 성수인 신유현 신은혜
신재원 신정은 신현정 심보배 엄나래
엄서이 엄 진오병희 오소민 오소희
오연제 오혜림 유경진 유세미 유정경
윤숙연 윤연식 이경은 이다솜 이도인
이미연 이민지 이보름 이상미 이수경
이연주 이윤주 이정은 이지현 이지현
이하연 이혜리 이효정 임예진 임옥경
임혜빈 임혜진 장정원 전혜민 전혜진
정소형 정유미 정이례 정이슬 정지연
정해인 정혜선 정희원 조수진 지현화
채영아 최보원 최유진 최윤정 최은진
한지혜 홍경미 황지은

Chit Myat Aein Dorjpagam

Jagdal Egoda Kapuralalage

Thilini Nisansala

Huang Meilin Liu Yaqing Mya
Myo Thwe Vannasouk
Lattanaphone XU JINGWEI

강예슬 강정효 강지혜 강 황 강희수
곽소현 구은파 김나래 김도희 김미솔
김민아 김민영 김보람 김서영 김수림
김수민 김수지 김수진 김시연 김아람
김엄지 김은정 김주연 김주혜 김주희
김지민 김지연 김지은 김지현 김하은
김현정 김현희 김혜지 김효은 김희준
김희진 노서정 박선희 박소연 박소현
박수진 박수현 박슬기 박아현 박연주
박지선 박현정 배한진 성지윤 송정빈
신보선 신지영 양송이 어윤지 오미경
오유리 오 윤 오혜민 오혜진 우은성
유승희 유윤경 유지원 유지현 유희정
윤선영 윤수진 윤승희 윤지연 윤지영
윤혜영 이경진 이나경 이동은 이미나
이세라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지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신영 이영신
이은숙 이은재 이정은 이정호 이현진
이혜민 이혜윤 이혜진 장다정 장영은
전소민 정다혜 정세진 정혜수 조나랑
조희연 주혜인 채성경 천혜진 최민지
최은미 최형은 추은혜 한소영 한수정
한혜정 허윤정 허진 현소영 홍덕희
홍지영 황예림

국제사무학과

김어란 송정빈 원윤정 정다혜 한신애
김모을 김서린 김정주 김주경 김지영
김지은 김한주 김혜진 박미희 백선흐
오연제 오진아 이진아 이초원 이하나
정유미 조유정 주다혜 최소영 최소희
국제사무학과전공

김주희 안수현 원미림 이정현 정윤주
정재연 한은환 김그림 김수경 김수진
김이진 김지선 오윤지 이선정 임소희
장소영 조민정 조상희 한정선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전공

강다혜 강혜민 경주현 곽지은 구한나
김미수 김민경 김민지 김슬기 김지연

김지원 김지혜 김진영 김태영 김혜원
김혜지 김희겸 김희진 남서현 남영선
류나은 류수진 류은옥 류하형 마정화
박성희 박수민 박인경 박지영 박하영
박혜영 백송 백숙영 성초아 손수빈
신여경신은주 신지선 안은영 양보미
양지연 원자연 윤지현 이규희 이소라
이소현 이수연 이슬기 이영롱 이영은
이은별 이지연 이지희 이창경 이현수
이혜수 이혜지 장다엘 전혜민 정윤정
정혜진 조은수 조 현 주지연 최기쁨
최지은 최희원 한보영 허유진 홍예림
홍은민 황도현 황인혜 황현아

Jin Guo Hua

체육과학과

곽은영 권세희 김보경 김 봄 김솔별
김지은 김지은 마지은 박소영 박현아
안소연 안혜지 유수현 유지원 유화연
이서연 이세리 이수아 이슬 이은지
이주민 이지민 이진아 이현진 임소희
임현정 장선희 정 민조은혜 조혜영
지유진

식품영양학과

강진선 고명신 고산하 공윤정 김세은
김수리 김수민 김지혜 민선미 박혜윤
배유수 심송옥 심지원 오나경 오수정
우소영 윤 봄 윤아람 이규희 이세라
이윤경 임아림 정지혜 조인형 최지영
최초애 홍성주 황윤비 황은비 황인선

KATO HITOMI

이서경 이서연 정애정

보건관리학과

공혜림 김수지 김시내 김지현 김하주
김현아 문이훈 박형숙 박희정 안정인
안혜주 오로라 오윤지 오혜민 윤원정
이루진 이소라 이영은 이예지 이진리
전서희 정윤희 지우영 하은지 한혜준
황효진

NYAMDENDEV JAMGAN

스크랜튼대학

자기설계(스크랜튼-통합적문화연구)전공

김선경 남궁유진 남궁윤 박경민 박은영
신지원 윤휘연 이수현
**자기설계(스크랜튼-디지털인문학)
전공**
박혜인 이인정 홍지원
**자기설계(스크랜튼-사회과학
이니셔티브)전공**
강송미 고선영 김민경 김민주 김수현
김아름 김유경 김은정 박다해 박은미
배한진 석지윤 송민지 신현섭 유수란
윤희영 이문화 이지수 이혜수 이희진
임수진 임효정 전수민 정미라 조원지
최송하 하세린
**자기설계(스크랜튼-사회과정의)
전공**
국희영 박미희 서인효 서혜진 심현수
안민영 오소민 이정연 최미나
**자기설계(스크랜튼-과학과생명)
전공**
박소미 박혜연 송지연 이연호 조정원
**자기설계(스크랜튼-인체와건강)
전공**
구주연 김보이 박혜진 이인영 조윤영
최영아
국제학전공
강민경 강성혜 강승연 강지원 김다영
김세연 김소현 김정희 김주경 김지연
김지은 류다솔 박문영 박부연 박소현
박 연 박유미 박은미 박인영 백하연
설정하 손상희 손지윤 송민지 신혜원
여정민 연지윤 오단비오 윤윤지연
이경진 이수연 이수진 이수현 이현진
이혜진 이희진 임세은 전소민 정은하
정재인 정혜지 조세경 조연주 조원지
한혜정 허수진 현지영 홍여원 홍지원
Esther Pau Sann Cing Kuga Akari
김다은 정하람 조은별]조혜수 천지혜

예술대학

건반악기전공
김지선 노슬아 정민정

관현악전공
권준영 김마리 왕희연 유경민 최다움

한경선
성악전공
김주현 노소정 어수진
작곡전공
정하연
한국음악전공
김다솔 김유민 박창현 박한결 박현진
엄소연 이상아 이율희 임유정 최은지
함진솔
동양화전공
강민지 김지연 백가영 윤윤주 이슬기
이시원 이은지 이효정 함윤희
서양화전공
공희재 김수연 김예지 김윤아 김은비
김은정 문경의 박다솜 박미정 백소연
석다솔 손아인 신혜수 안혜신 윤소린
이다희 이 람 이명진 임묘경 임지혜
장희라 정수형 채유진 탁민경 한수진
현보람 곽주현 송지영 정재연
조소전공
강효진 김나경 김유리 김혜리 김혜진
송지영 신유진 안유진 유건형 유혜인
이민종 이아람 이주혜 이지윤 이창우
정승민 한혜준
섬유예술전공
강예슬 김세미 김수영 김유나 김정민
민향기 박경미 심예슬 윤 랑 이기정
정지수 조아라 차윤정 황주연
도자예술전공
곽주현 김현주 박해리 신휘우 이임주
이지윤 정재연 허소영
공간디자인전공
신아연 한소은
시각디자인전공
김수현 김연정 김주연 김희중 박지원
박하윤 이가람 이수경 이유나 장소은
정은욱 최자은 채유진
산업디자인전공
강유진 강혜미 김한송 박소연 송영은
이보화 이지원 정희원 이지윤
패션디자인전공
강수정 김민주 김선영 박소단 서지현
송영실 안홍윤 이다은 한지아

Liu, Hui-Chen
영상디자인전공
강예슬 김지은 김지혜 배지인 서문한결
이하영 이혜연 최정은 홍지윤
의류학과
강민영 강혜원 공가애 김나연 김민희
김주혜 김현주 남수진 박수경 선세영
신수현 안현주 이수지 이유나 이정윤
이주현 이지민 전내영 최운정 안혜신
무용과
권소영 권유리 김민지 박승아 유초롱
정희경
법과대학
법학과
감민지 강연옥 강지원 경선희 고예지
구민지 구혜원 권민지 권새롬 권희진
김가영 김나리 김 린 김미소 김미혜
김민주 김 별 김선아 김소연 김소영
김소현 김수민 김수연 김수정 김예슬
김옥선 김유정 김유진 김은지 김인하
김인혜 김주연 김지원 김지은 김지은
김지향 김지혜 김 진 김태은 김현영
김현희 김혜린 김효진 나단경 나예지
나현나 나혜윤 남민영 남 향 노현주
류주희 류진아 문예지 민다혜 민은기
박미희 박민정 박민혜 박예은 박은솔
박재희 박정빈 박 현 박효숙 방보미
배혜정 백민영 백소엽 백은영 백일하
봉 황 서누리 서보영 서지은 서진손
서 영 송선아 송 원 신다정 신선하
신유진 신지원 신지은 신현경 신희진
심윤보 심지은 안윤정 안진희 양경임
양승혜 양주희 양희아 오수현 오은정
유선영 유아람 유어진 윤서영 윤서영
윤정원 윤 진 윤해연 이명화 이미경
이민정 이민희 이소연 이소희 이수연
이언정 이여란 이영은 이예슬 이윤하
이은민 이재림 이준경 이지선 이진주
이혜진 이혜진 임서현 임서희 임선임
소 연 장양선 전세영 정서현 정서희
정유정 정은지 정인혜 정지혜 정하영
정혜인 정희윤 조미소 조소희 조은솔

조희영 지하나 진보라 천효정 최단희
최미나 최수진 최수현 최유라 최은지
최인해 최정원 최지인 한동희 한아름
함혜란 허선혜 허순민 허유진 허지선
현수영 황세원 황희다 문혜진 박희수
서단비 이지영 황현지

약학대학

약학과

강민지 강연재 강형경 문나경 박지연
서연성 양운정 윤보미 이민영 이소진
이윤주 전윤진 전희경 정지은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김그림 문소라 박혜수 백수영 정애정

간호과학대학

간호과학과

김유리 송가람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전공

고복희
의류직물학전공
김상이
식품영양학전공
김분령 백민정 이은주 조현영

연계전공

동아시아학전공

고명지 김동은 김수경 류영주 배정인
백민영 송지나 신현경 심유경 윤설아
정이슬 채재원

유럽학전공

김세희 이경원

미술사학전공

강유경 강정효 공가애 공희재 권재희
김슬기 김예린 김예지 김유리 김지원
김한결 김해미 민지은 박소윤 박수경
박수정 석영경 송혜수 유애리 윤소린
윤연식 이수현 이주현 이창우 이효정
임묘경 임지혜 장유진 정재연 정혜인

조소희 차윤정 차한비 천지혜 최은진

여성학전공

김혜은 박지희 박희수

멀티미디어학전공

김희중 오예솔 이가람 이수경 이향은
전문영어전공

김민지 박소담 배경인 안소연 이정은
정재연 정지은 최유진 한은환

북한학전공

김수민 김윤정 이은미 이정신 임혜빈
전은진 주소은

한국학전공

손빛나라 Chan Wing Shan

인지과학전공

김다은 이지민

도덕 윤리교육전공

김지민 박한울

정보보호학전공

최주연

과학기술경영전공

곽태리 유효라 이미경 조선정

재무경제전공

김설희 김수연 김영진 김지혜 노윤영
류경인 장현진 최예원 홍세지

공통사회전공

강민채 강슬기 고민정 고재원 구아름

구은지 권민정 김미리 김민성 김민정

김보경 김수연 김수진 김슬기 김연수

김예솔 김재은 김하영 민지은 박상희

박지혜 박현진 송화령 신동은 신희영

안영은 오정미 윤연주 이다영 이 삭

이상경 이소정 이소현 이수연 이승현

이윤실 이화용 정연희 조다정 조예슬

조은아 조지수 조한별 한나라 함호선

현지아

공통과학전공

강은지 강희정 고나리 고연주 구수연

권수희 김가은 김경은 김다애 김단아

김모을 김미라 김보경 김보라 김수현

김시연 김영희 김예진 김유리 김윤지

김은지 김은혜 김정아 김정현 김정화

김지은 김진주 김혜원 류진주 박동화

박세희 박예승 배수연 사공달 서민경

서연수 성민진 손세영 신다인 신유연

양예진 양인정 양정현 오승희 오은주

오지혜 오진영 오혜정 유상미 유슬기

윤보라 윤화영 이경희 이민경 이민주

이수진 이슬기 이슬기 이유강 이유라

이윤미 이정하 이현아 이혜인 장다영

전소영 전유선 전은정 정기정 정유진

정유진 정종회 정지나 조성은 조아라

조우리 조윤주 조화영 진소연 최문진

최수연 최지연 하재은 한조희 허송이

허은정 현승연 현혜성 홍세아 홍해인

아동학전공

김민정 김효진 민사빈 박선영 안혜주

바이오인포매틱스전공

김지은

일본언어문화전공

김성경 김희재 송세진 오지혜 우소영

이우정 이지선 이지원 이현정 이현진

전내영 최보원 한지연 황열아 황윤비

사회복지학전공

김다현 김윤영 김지민 박고은 신서아
조인형 최반조

대학원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김혜림 문세영

MA JUN ZHANG WEN YI

중어중문학과

이지현

영어영문학과

이상은

불어불문학과

한승주

기독교학과

강선구 오혜민 임수정 차민희

철학과

최은영 홍지영

사학과

김유나 박명덕 박초롱

미술사학과

김정현 문주원 박성연 신은영 신일지
윤소라 윤소라 이혜원 정현희 홍승해

소비자학과	YIN MENGQING	이학석사
박은혜 양희정 임송하 임은정 정용주 지현경 한혜진 홍서경 홍수아 Jiang Mengfan	문헌정보학석사	수학과
여성학과	서선경 황수정	김은경 김현정 김혜지 양효선 이은혜 전예슬 조선진
Yang Yan	사회학석사	통계학과
교육학과	송한나	김주혜 김지현 남해별 백서연 백선영 오선아 오정아 우민아 장은정 전세림 한수지
강설화 김미성 김은선 김자영 박영미 백인혜 선미숙 오성은 유지현 장가람 최유미	심리학석사	물리학과
유아교육학과	강한아 김수은 김유진 김지은 김현주 박민지 박선영 박은영 박지은 박지현 심현은 안상미 안지현 윤수란 윤정화 이신애 이해진 임경민 임미혜 장희진 전경화 정나영 한남영 hailan jiang	남지연 오민지 이재은 정주희 조윤애
김은정 오주현 윤수진 이솔아 임진미 장민영 정다원 최아영	언론학석사	화학, 나노과학과
초등교육학과	Lim Jie Tong Thi Tien Chau	강민경 강지선 고아라 김경 김소영 김 아림 김여진 김지혜 남계옥 명동신 박 지연 배애리 이수진 이재연 이해민 장 우정 정경화 정유경 하예진
김한나 서초영 이종아 장혜진 최경순	언론홍보영상학과	생명, 약학부
교육공학과	강서희 박근영 박상희 안현수 이하나 정은선 정지인	김새롬 김수연 김수연 오혜윤 윤효은 이보라 최은정 현승하 홍은경
김지연 류혜선 설현남 유나연 임유진 조수경	아동학석사	과학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Lim Jie Tong Thi Tien Chau	백수현 이자희 최가영
봉귀영 윤영해	아동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어교육학과	강은아 박수연 박재윤 서한누리 안효 민 엄은주 이시연 이해령 임은정 한아 름 LI HUA	고아라 김미나 김소연 류나희 박지은 안미진 안영숙 여지윤 유헌화 이예진 임은정 장한이 정샛별 정선윤 정유선 최예진 Mejos Karen Kay Rosario
송민아 임정민	교육학석사	에코과학부
사회과교육학과	공혜림 김규연 김선경 김윤정 김현진 류수경 심현아 오은하 유진현 윤희성 정수민 조성윤 최화영	이원희 임수정 Rahayu Oktaviani
김지수 선진명 정화영	국어교육학과	의과학과
국제사무학과	언어병리학석사	김경희 윤영소 이수민 이해련 조아라
김성현 서가은 오지현 이미선	언어병리학과	바이오융합과학과
수학교육학과	김정은 김찬희 노지민 현승희 현정민	김애리 김은정 송다영 연보라 우재영 우하나 윤희정 이송이 정소영 최지영 한정은
김지영 서혜경 손정화 신채영 이유진	언어병리학	뇌, 인지과학과
동아시아학연구	최여진 최현미	박진영 이애희 이정은
Dang Nguyen Thuy Duong He Yin	법학석사	약학석사
한국학과	구교은 김수지 김윤희 김은미 김진경 김하연 박세희 이여진 조은주 최효원 태지영	생명, 약학부
유사원	경영학석사	권한별 김서영 김소연 김소희 김솔지 김지영 나은정 박선하 박연승 박혜인 송두희 송지현 신정은 심미경 양서윤 엄지은 오벼리 우지선 유지민 이경은 이선화 이주연 임아름 임현아 정지은 하슬기
정치학석사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	김유선 김한주 민소라 서연준 윤새미 정선이 흥지혜	
김성현 노지연 성주옥 윤지영 이민정 이은진 정하연 한봉이 MUN POLINA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김가연 김상숙 박민혜 신혜리 정미연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김수현 왕승현 정선 JIANG MENG		

바이오융합과학과
강혜지 손민지 송순화 정인지
보건학석사
보건관리학과
강명주 권미영 박예진 백형원 이나래
정한나 KHINE MON
간호학석사
간호과학과
권미희 김경희 김귀례 김미남 김지인
윤문희 윤현경 이경주 이미욱 장수현
홍미경
공학석사
컴퓨터공학과
유주영 윤미소 이정인
전자공학과
강채린 김미련 김아람 김은서 송수인
신지혜 이정원 이진주 최영주
건축학과
강혜민 남희경 오진희
환경공학과
강민경 김다해 김보람 박효민 신수진
신지현 이상아 최인영 Jin Lan
식품공학과
기민지 문상아 송다현 심혜민 우지민
유서연 이다연 이아영 전은영 최윤정
디지털미디어석사
디지털미디어학부
소유나 심세라 이주희 정유진 최은선
한혜진 함고운 홍연경
음악학석사
음악학부
유한나
음악석사
음악학부
강진경 고진명 김기예 김민영 김바니
김보연 김소령 김영은 김지영 김진주
김현영 김희진 도지은 박소연 박유나
박정민 박주리 박지나 박지연 박효원
배성아 배은화 서정하 성히라 손보령
손정수 양옥규 이정은 이혜은 임윤정
전자희 전혜림 정명나 정인미 조성연
조안나 조현희 진혜민
미술학석사

공예학부
이주연
조형예술학석사
조형예술학부
김채하
조형예술석사
조형예술학부
권구희 김민희 김이슬 맹희원 박유경
오세미 이선아 임우재 정연진 조하나
최세진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부
권지영 길진희 김은경 김주연 박지영
박지혜 손희정 신은경 전혜진 주민경
한애니 허선주
의류학석사
의류학과
권수경 소지인 송수진 윤지해 홍세빈
무용학석사
무용학과
이소연
무용석사
무용학과
고내현 김유리 김정은 김혜윤 민형원
안나영 양채민 유수현 윤세정 이은미
허다솜
체육학석사
체육과학과
김혜림 김효진 김희연 이혜정 정은희
조윤경 최선아 허예린 홍한나
의학석사
의학과
권성신 김경진 김지혜 김한울 김혜연
김호정 나은혜 박소연 박지은 박진영
박희은 반유화 성은아 양가영 우주현
원은경 이소원 임선희 정수연 정재아
정경화 조수영 최미주 최주영 피명선
지역학석사
지역연구
홍선경
북한학석사
북한학
전진희

영재교육학석사
영재교육
고진아 윤미정 이명자 전경민 정혜진
조영은 최지호

국제대학원
국제학석사
국제통상
김지혜 송지은 유경민 이해나 정수진
최수진
국제경영
김윤영 김지희 박희정 배은영 조상미
WANG,QIAO XIE,YUANBEI
개발협력
강지현 김보라 김소은 김은진 김준희
김환이 박은혜 손정은 오연주 이유빈
하솔잎 PENG,HONGDOU
국제관계
김정심 이도은 전상미 Francisca
Ratna Ning Arti SKIBA, JENNIFER
BEOM HEE
한국학석사
한국문화
박세다 유현숙
한국어교육
고은정 김정연 김지현 심윤진 안재린
이승민 조은주 홍인화 JIN,HUIYING
KESMANEE,CHUTMON

통번역대학원
통역학석사
한영통역
김미현 김민지 김은설 김혜미 남원미
류호윤 배경숙 신영주 양버들 양수연
여혜정 윤정선 이 윤조주연 차현정
황현아
한불통역
고은혜 김지선 이학현 정윤정
한중통역
강려영 김애령 김지아 박영 성혜영 윤
민주
한일통역
김은진 남지언 박고은 스미요시유우

신재은 심지애 이정옥 정수연 조지은
차유리 채송화

번역학석사

한영번역

김나래 김랜시 김지선 김희진 명선민
박윤실 박진경 박현진 신봉아 양성애
유한나 이상은 이예송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지민 이하영 이현수 이해주
정유정 황순옥 황유진

한불번역

김수연 김지혜 박민정 윤새봄

한중번역

계은영 김연화 박소정 반녕녕 안상신

한일번역

김수진 박경희 박은혜 스즈키사오리
신은화 이정미 황나희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

간기현 권소일 권용희 김보람 김상미
김소희 김예슬 김은혜 김종희 김지선
민지은 배이진 백경원 백종립 선미정
선한나 성민현 송재영 신은경 안선경
양지혜 양혜원 오재진 윤은희 이은정
이주용 이현정 이희진 이해은 장윤실
정우빈 정은주 조미현 조은정 조정화
조지혜 주보라 최선영 홍희선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

경영학

강지원 권정희 김도연 김슬기 김진영
문지연 민지현 박소영 박지영 변지영
오상희 이유선 이해련 이효정 정혜선
정혜진 조은영 한옥경 허혜경

재무

김서연 김혜현 나경은 서희진 석나영
신지원 최진영 황윤희

회계

양유화 황유리

마케팅

김민지 김서연 안영신 윤진영 이사랑

정원희 최은실

경영정보시스템

박인혜

인사조직전략

김송아 김혜진 나성미 안주희 엄재선
이명자 이승희 황선애

금융MBA

강나예 김유나 민수영 박수아 임효진
전혜인 홍보미 LEE YOUNJOO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

의학과

강은정 강인선 권민정 권지아 김근전
김나루 김리영 김미경 김민지 김선영
김성연 김소정 김아영 김 은 김정원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하경 김효섭
남지나 노수란 노향란 류지아 문희향
박가희 박마리아 박소현 박슬아 박윤희
배정아 서시정 서정은 소민정 신 환
심지수 안상미 안소연 양소연 예신희
우아미 음수연 이나영 이상원 이아영
이지은 이현영 이해경 이해진 임영미
임지영 정다미 조안젤라 조애린 조한울
주유영 진소희 채보라 최수정 최은아
최은지 최정은 현혜란 황소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법학과

강서영 강윤아 강혜정 곽수현 구수현
권기연 권인화 김광미 김다혜 김명주
김문정 김미경 김민정 김민지 김보미
김성아 김세라 김수연 김은영 김은진
김정은 김지영 김지은 김지현 김 학
김한울 김효진 문다영 문은희 박다혜
박서용 박선화 박은주 박주선 박지혜
변성숙 서경화 서고운 서지혜 설미현
송미양 송춘실 송현숙 신병주 안정연
양세원 양정윤 양지민 윤보미 윤성희
윤세영 이건화 이경민 이미영 이민주
이슬기 이승은 이연주 이은해 이지나
이한결 이한나 이해린 이해미 이효은

이효진 임다영 임지영 임현진 장미정
장수민 장윤미 장정은 정선화 정유진
정지은 조소희 조윤미 조이람 조혜진
조혜원 채지우 최린아 최인경 최지윤
함선혜 홍경화 홍유정 황혜선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국어교육

권혜정 김지영 김태연 박미정 원민희
이명현 장새롬 최서영 최은혜

수학교육

강민정 강민지 이해림 하미현

역사교육

권규빈 이은경 이창온 최진호 홍진희

지리교육

신효진 오선민 윤홍경

일반사회교육

류미선 박수희 성락영 윤혜원 이솔 이
혜미 표병아

물리교육

김기정 김지영

화학교육

원남희 이가영 정지영

생물교육

김재경 방예진 우정주 장혜원

지구과학교육

오수민

음악교육

김은형 김주아 심소연 이상리 이유나
임윤 정광석 최은희

미술교육

강경민 김유은 박미영 박선주 박주영
조은지 최윤지 최은석 황지현

체육교육

김명미 김미리 소재희 장지은

가정과교육

김은미

도덕, 윤리교육

김성희 허덕향

영어교육

김경희 김민지 김수윤 김윤미 김지은
민지연 박주연 안혜진 이동은 이승옥

이지영 임지연 정주은	이화진	김다솜 김주연 오경지 이윤경 이주영
중국어교육	실내디자인	조선미
김나경 이동은 이주희 최화신	이경진 이소영 임지현 황희진	무용공연지도
환경교육	User Experience디자인	조민희 한은나래
김혜영 정은우	김규정 박나영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컴퓨터교육	디자인매니지먼트	
이윤정	김나영 김윤선 김현정 문기연 박서영	약학석사
유아교육	박재준 서윤정 윤재희 이영화 이정미	임상약학
김남희 김진수 김혜진 박선영 박성경	이정아 이정주 이지선 허윤정	오윤경 이서영 전은경
정봄마지 허진현상원 황선이	정보디자인	영양학석사
초등교육	맹성아	임성영양학
이현자 전혜미 조수빈		박진희 주민정 최정현 추지은
특수교육	신학대학원	간호학석사
백미애 변미진 심은정 양여경 이영아	신학석사	임상간호학
교육행정	신학	구종모 마혜진 박정아 손승숙 이윤희
신정은 이민승	권영미 김미희 김성희 김현숙 성미영	이자옥 임현주 정채윤
교육과정	원진영 유정호 이선용 이지나 정영화	
김주리 유현주 이재희 조은선	최혜경 Ly Aye	
상담심리		임상치의학대학원
김지혜 양정은 이선아 이순하	정책과학대학원	치의학석사
교육공학	정책학석사	임플란트치의학
노지예 신은미 은주희 이혜진 전미경	공공정책학	이미경 한혜영
진혜원 최정임	김군나 김은지 김지예 이근정 한소혜	임상교정치의학
한국어교육	홍세정	김연주 손수정 이정은 최경희
김가연 김고은 남미정 문진희 송효진	경제학석사	
신수정 심호연 이윤필 조일옥 최연숙	공공정책학	
하미령 하승현	김한나 박송이	
음악치료교육	언론학석사	
강해선 김소영 박경신 박은주 이소라	언론홍보학	
이진 장예지 정우진	서세정 양윤선 정혜승	
	기록관리학석사	
디자인대학원	기록관리학	
디자인학석사	배희정 최현숙	
의상디자인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박은형 서동민 안윤서 이수현 정혜영	공연예술대학원	TESOL석사
섬유디자인	음악학석사	TESOL
강지영 백소영 양지아 이미정	음악공학	강유선 고은정 김근혜 김유정 김한나
도자디자인	박새롬 손민혜 장민자 최은정 한정림	김현주 김혜리 김혜신 나고은 박라형
정혜원	피아노교수학	박주현 신윤정 염혜경 오지은 이미리
광고·브랜드디자인	강혜경 경선이 권유진 김민희 김예원	이민진 이민해 이성숙 이은정 이혜민
김수현 김연희 박소은 우진화 유은경	김예지 김지선 박효선 윤혜진 이가희	장현영 정경인 정연선 천혜숙 최다혜
임지은	이난영 이소리 이은혜 최주희	최미라 최예원 황숙희
사진과편집	음악예술경영	LEESUNYOUNG
		국제중국어교육석사
		TECSOL
		김미홍 김주희 남미향 박수진 박재희
		박지현 손혜원 이상은 전채린 채경미
		최연경 황해금
		한국어교육석사
		TKSOL
		김서영 김예원 김유나 박사라 서유정
		윤재경 이지은 장경아